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 트럼프 vs 바이든 “이제 10%를 잡는 싸움”

앤디 김 후보  
투표용지 소송 승리

**SPECIAL STORY**

부동층 10% 선거일 압박해 결정  
막판 돌발이슈가 선거 뒤흔들 것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화제가 됐다. “(트럼프는) 이기는 캠프가 아니다. ‘파산한 돈(Broke Don)’은 지하실에 숨었다.”

약 5억 달러의 법원 공탁금을 내기 위해선 자산을 팔거나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처지를 조롱했던 내용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졌던 트럼프가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면서 인터뷰 등에서 “패배자(Loser)”란 표현도 자주 쓰고 있다.

이런 ‘별명 부르기’는 원래 트럼프의 전유물이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부터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틀어진 힐러리(Crooked Hilary)”라고 불렀고, 다음 대선에선 바이든을 “졸린 바이든(Sleepy Joe)”이라 부르며 희화화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그간 바이든 캠프가 지켜오던 ‘그들이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전략에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에게 당하기만 하는 유약한 노인이란 이미지를 벗으려는 반격인 셈이다.

노선 수정은 트럼프 캠프에서도 감지된다. 바이든에 대한 공격적 언사는 여전히지만, 최근 들어 유세에서 “지난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표현이 부쩍 줄었다. 대신 “방해받았다”라든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식의 순화된 표현으로 대체했다. ‘선거 사기’ 프레임에 반감을 갖는 고학력 중도층 유권자를 의식한 전략이라는 게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분석이다.

대선을 7개월 앞두고 바이든-트럼프 캠프의 전략과 현황을 중간평가하기 위해, 여론조사 분석기관 538의 너새니얼 라키치 선임분석관과 디지털 전략 자문사 리버럴 커뮤니케이션즈의 조시 클레먼스 대표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대신 “방해받았다”라든지 “나쁜

라키치 분석관은 이런 두 캠프의 변화를 두고 “유권자 약 90%가 표심을 굳힌 상황에서 나머지 10%의 마음을 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클레먼스 대표는 “이런 부동층 공략을 위해 두 캠프 모두 디지털 전략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3월 여론조사 결과 의미 없어”(너새니얼 라키치 538 선임분석관)

-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많이 따라잡았고, 일부에선 앞선다는 조사도 나온다.

“한두 달 전보다 나아졌는지 몰라도 큰 의미 없다. 여론조사가 꽤 정확해졌다고 해도 100% 맞을 수는 없다. 이미 2016년에도 뒤집히는 것을 보았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온다 해도 표본의 단순한 오류로 인해 바이든이 오히려 몇%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선거는 11월이다. 3월의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큰 관심을 기울여선 안 된다.”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 3면 ‘11월 대선’으로 이어집니다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3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이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투표용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29일 김 의원과 다른 연방하원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장을 인용, 뉴저지주의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중 19개 카운티는 당 지도부가 인정한 후보를 이른바 눈에 잘 보이는 ‘카운티 라인’에 배치해 득표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유지해왔다. 당 지도부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시베리아’칸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안아야 했다.

김은별 기자

▶ 4면 ‘투표용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운명의 5·6일... 여야, 사전투표 총력전

(사전투표일)

총선 D-9 사전투표 나올 앞으로  
21대 총선 서울 44곳서 당락 일치

4·10 총선 사전투표(4월 5~6일)가 나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면서 사전투표 시점에 이미 당락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사전투표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2016년 총선에

서 12.2%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은 26.1%(2017년 대선)→26.7%(2020년 총선)→36.9%(2022년 대선)로 상승했다. 특히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44곳에서 사전투표에 승리한 후보가 당선됐다. ‘사전투표 승리=선거 승리’가 공식화되고 있다.

①여당도 사전투표 독려=그동안 국민 의힘은 사전투표에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사전투표 신뢰도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만 사전투표 참여자가 늘어나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면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앞선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상승은 야권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사전투표율 26.7%(전체 투표율 66.2%)를 기록했던 21대 총선(2020년) 당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압승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성운 기자

▶ 2면 ‘사전투표’로 이어집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31일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우편함마다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배달돼 있다. [뉴시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여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을 드립니다.

# 이재명 “여당 참패란 말은 엄살... 악어의 눈물에 속지말라”

주말 지역구 계양을 찾아 집중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여권 내 위기를 겨냥해 “정부·여당의 읍소 작전”이라며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국민의힘이 반성한다고 하고 바꾼 적이 없다. 그들이 (총선에서) 참패할 것 같다는 소리는 엄살이고, 대국민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1당이 되면 이 나라는 걸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다급한 것은 우리”라면서 한 말이다.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줄곧 거친 발언으로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자신의 피습 사건을 언급한 이 대표는 “(유세 현장에) 생선회칼이 등장하지 않나, 야당 대표 목에 칼을 들이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며 “민주국가에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서는 “생명을 지킬 국가가 의사와 힘겨루기를 하느라 장기간 의료대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 간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

당이 (총선 전) 전격적 합의라며 반전을 피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2000명이 아닌) 700명, 500명 정원 확대를 한 뒤 ‘우리가 해결한 거 봤지’라고 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라도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인론 정책에도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중립적인 사람들은 다 커트(cut)하고, 극우·편향적인 사람들 방송에서 진행자로 배치한다”며 “국민을 가짜뉴스 주면 놀아날 동물 처럼 여기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강보현 기자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 “총선 끝나면 쫓겨난다? 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동남부를 중심으로 9개 일정을 소화하며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과 양문석(민주당 경기 안산 갑 후보)과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 후 자신의 출구전략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선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지원 유세 현장에서 “누군가는 이번 선거에서 저 한동훈을 보고 찍어줘 봤자 나중에 쫓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오로지 나라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하남시 위례스타필드 앞에서 이창근(하남을) 후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살고 여러분이 잘살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뭐든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그간 여러분(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떻게든 바꾸려 노력하고 실제 바뀌었다”

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회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9일 최종 사임하는 과정 등에서 당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걸 거듭 강조한 셈이다.

야권을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은 한층 격해졌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의 ‘11억원 편법 대출’ 논란을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이라고 거듭 규정했다. 전날 양 후보가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 그러면서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뤄보자”며 “(양 후보 대출에 따른)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간 소상공인이 피해

자”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이전 유세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모욕 논란 등을 나열하며 “이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 게 쓰레기 같은 말 아니냐. (그건) 제가 물어볼 수도 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생·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고 마약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쓰레기 같은 말 아니면 뭐냐”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의 읍소를 거론하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 말이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받아쳤다. 전민구 기자

### ▶ 1면 ‘사전투표’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투표 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전투표에 소극적으로 알려진 60대 이상, 보수 성향 지지층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서 야당에 밀리는 분위기가 형성

되면 그나마 투표하려던 지지층도 포기해 선거관 자체가 넘어갈 수 있다”며 “사전투표 결집력이 전체 선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지역의 각 후보에게 사전투표 독려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극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 결집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3월 28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처럼 20·30세대의 저조한 투표율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30 남성은 지난 대선

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지지층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들의 사전투표 참여가 높아질수록 여권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0·30 남성은 여당에 가깝고, 20·30 여성은 야당에 가까운 편”이라며 “정권심판론이 더 먹히면서 20·30 남성층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 하락은 여권에 불리한 징후일 수 있다”고 말했다.

② 야당 “투표율 65%는 매직넘버”=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

은 지난달 18일 “투표율 65%를 넘으면 승리한다”고 주장했다. 즉,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이아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달 25~27일 유권자 4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5%포인트, 응답률 3.9%, 휴대전화 ARS 방식)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뽑겠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9.8%에 그친 점도 민주당에는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극

우 성향 유튜버의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박주민, 이해식, 천준호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한 데 이어 30일에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강민석 대변인)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의 부정선거 우려가 커지면 사전투표 열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며 “거리 유세와 SNS 등을 통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워싱턴 날씨 (°F)**

2일(화) 57~45	5일(금) 52~37
3일(수) 54~38	6일(토) 56~37
4일(목) 53~35	7일(일) 58~34

4월 1일(월) 64~5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곽태우 변호사

##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571.405.6540**  
alexkwakesq@gmail.com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 키 브릿지 붕괴 “교량 공포증 급증”

“대형 다리 너무 쉽게 무너져 허탈”  
“결함, 노후 관련 관리 문의” 늘어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붕괴 이후 다리 공포증(Gephyrophobia)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한인 백 모씨는 “매일 출근 경로가 알링턴 카운티에서 키 브릿지를 지나 워싱턴DC 조지타운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사고 이후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언론이 지속적으로 다리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리 공포증을 지닌 주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연방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모든 교량들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3조 달러에 이른다. 워싱턴 지역의 경우 1200 개 이상의 노후 교량이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다. 이들 워싱턴 지역 노후 교량들은 대부분 1950년대와 60년대에 건설된 것들로 물리적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그나마 안전을 위한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전체 다리의 9%인 약 2000개가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메릴랜드는 8%인 410



개 다리가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벤 사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 다리를 건너갈 때 어느정도 불안감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큰 사고 이후에는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서 “엔지니어들이 최선을 다해 시공하고 안전을 담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애비게일 마쉬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다리를 건널 때 어느정도의 불안감을 지니는 것은 정상이지만, 정도가 지나쳐 공포 수준으로 넘어갈 경우 행동 및 심리 인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 길고 높은 다

리를 건너는 모습을 머릿 속으로 상상하고 이를 극복해 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교통당국은 다리 공포증을 지닌 주민을 위해 통행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주립경찰국은 2007년까지 다리 공포증 주민들이 체사피크 베이 브릿지를 건널때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민간 서비스 업체 두곳이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 ‘베이 브릿지 드라이브 오버’를 운영하는 스티븐 에스커우는 “웬데믹 이전에서 매년 평균 7천건의 대리운전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 맥아더 장군 서거 60주년 행사 열린다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사진)가 오는 4일 노퍽 소재 맥아더 장군 기념관에서 맥아더 장군 서거 60주년 기념행사를 주최한다. 김인철 회장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서거 60주년



을 한인 동포들이 함께 추모하며, 장군을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7시 단체 버스편으로 노퍽 소재 맥아더 장군 기념관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문의: 703-403-7080 (김인철 회장) 김윤미 기자

## “이슈 환경, 트럼프에게 유리”

▶1면 ‘11월 대선’에서 이어집니다.

-왜 그런가.

“미국인의 90% 이상은 이미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다. 이들 모두 중성적인 민주당 지지자거나 공화당 지지자들이다. 나머지 부동층 10%는 선거일이 닥쳤을 때, 이슈 환경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에 따라 투표할 것이다. 그게 낙태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터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처럼 갑자기 각 선거 캠프에 변화처럼 쫓겨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대선까지 환경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변할지는 알기 힘들다.”

-현재 기준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이슈 환경인가.

“트럼프에게 아주 조금 더 유리하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바이든의 인기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충격적이다. 물가도 높다. 바이든 정부가 중동 전쟁을 대하는 방식에도 불만이 많다.”

-앞으로 7개월간 중요 화두는 무엇일까.

“바이든에게 경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미국인들이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몇달 연속 지표가 좋게 나와야 한다. 트럼프에게 역시 사법 리스크가 문제다.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지고, 실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거에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두 캠프 모두 지금보다 더 상대에게 불리한 부분을 부각해 공격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디지털 전략은 바이든 완승”(조시 클레먼



네세니얼라키치

조시 클레먼스

스 리버럴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두 캠프의 디지털 전략 차이는.

“최근 트럼프 캠프는 (압류 위기에 처한) 트럼프 타워를 구해야 한다는 e메일만 수십 통 보냈다. 소셜미디어에선 소액 기부자를 모으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뿐이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디지털을 이용해 새로운 청중에 다가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 대선 승리는 목표를 향한 내러티브가 있다.”

-트럼프를 조롱하는 바이든의 전략이 디지털에서 효과적일까.

“상대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였다면 다른 전략을 취했겠지만, 트럼프 이다 보니 그에 맞춘 것으로 본다. 별명 보다는 트럼프의 구체적인 잘못을 공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디지털 선거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

“선거에서 디지털 전략 짤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자신이 굳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다.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문제 해결책의 일부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렇게 팀의 일원이 되어 투표장에 나오게 돼 있다.”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 “고교 졸업 즉시 경찰 지원 가능”

VA 주립경찰국 ‘졸업 직후 채용 프로그램’  
긴급신고 응답원 거쳐 21세 경찰아카데미 입교

버지니아주립경찰국(VSP)이 고교 졸업자들이 곧바로 경찰아카데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버지니아 주립경찰인사관리법에 의하면, 경찰 지원자는 주립경찰 아카데미 졸업 직후 21세에 도달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인데, 고교를 갓 졸업한 이들은 18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VSP는 이같은 맹점을 보완하고 주립경찰을 지원을 원하는 자들의 연계고

용을 보장하기 위해 18-20세 지원자에게 긴급신고 응답원 자리를 개방했다.

18-20세 지원자가 경찰아카데미 지원 전 긴급신고 응답원으로 일할 경우 5천달러의 지원 보너스를 지급하고 풀타임 근무를 보장한 후 21세 연령에 도달하면 경찰아카데미에 들어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아카데미 지원시 5천달러 보너스를 추가 지급하고, 8주 코스의 경찰아카데미 수료 후 북버지니아 지역에 배정될 경우 최소 7만5939달러의 초봉



을 보장받는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경찰아카데미 지원시 20.5세에 도달해야 한다. 고교를 졸업한 17.5-20세는 경찰생도(cadet)에 응시해 견습기간을 거쳐 경찰아카데미 입교를 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유지보수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L&C UNIVERSAL GOLF**

Leader in the World of Golf Instruction

**NEW**

센터빌에서 **그랜드 RE-오픈!!**  
골프 열기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L&C Universal Golf 실내 골프장으로 오세요.

**골프 아카데미 스쿨**

- 일반인 레슨, 교정
- 슬라이스,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 전문 교습
- 철저한 1:1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아이언샷, 퍼팅 강습
- 주니어 연습생 레슨
- 회원 스크린 영상 서비스
- 하루 1시간, 3개월 후 변화

센터빌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 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 이정후 ‘MLB 첫 홈런’ 공 잡은 주인공은?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데뷔 후 처음 때려낸 홈런공은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팬이 잡았다.

이정후는 30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4 MLB 정규시즌 방문경기에서 MLB 첫 홈런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은 경기 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이정후가 ‘MLB 첫 홈런’ 공을 잡은 주인공과 함께 찍은 사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 X 캡처)을 게재했다.

구단은 “이정후의 첫 홈런을 잡은 가족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출신이지만 샌디에이고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김하성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 가족은 이정후에게 김하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이에 이정후는 “하성이 형에게 여러분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 ‘1면 투표용지 소송’에서 이어집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가차분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는 6월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별도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이한 선거가 치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부인 태미 머피 후보와 연방 상원 후보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중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머피 후보는 지난 24일 깜짝 사퇴했고, 김 의원이 수월하게 민주당 후보에 지명될 것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부당한 투표 용지 문제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최저 시급 20달러 인상 여파  
가맹점 60개 이상 업체 대상  
프랜차이즈 업계 뒤늦게 인지

1일부터 거주 지역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AB 1228)이 한인 업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228의 적용 대상 기준이 난해한 탓에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비상이다.

일례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푸레주르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보내 “푸레주르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 법이 정의한 레스토랑에 해당한다”며 “가주 지역 점포는 AB1288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다. LA지역에서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는



앨런 황 대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맥도널드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주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다 같이 모여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AB1288 규정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BBQ치킨, 본촌치킨, 요거트랜드, 투헨즈 핫도그, 모찌넛,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등 다수의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대부

분 한인 업주들이 많은 업체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미국지회(KFA USA)의 이요한 고문 변호사는 “패스트푸드 업체 적용 기준을 두고 현재 한인 업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올라가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샐러리를 받는 사무직 중 오버타임 면제 대상의 최저 샐러리 금액 역시 최저시급의 두배 이상인 8만3200달러로 인상돼 혼란이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주들은 최저 시급 인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다.

현재 LA 인근에서 요거트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영준씨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요거트까지 이 법에 적용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면 인건비가 단번에 3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업주들에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본지가 AB1288 규정을 살펴보니 ▶가주를 포함, 전국에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 아이스크림, 커피, 보바, 프레첼, 도넛 등의 요식 관련 체인 ▶음식 주문 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일부 제한된 시설을 갖춘 경우 ▶투고 등을 통해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 음료를 제공할 경우 등에 부합하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패스트푸드 분류 기준도 난해하다. 베이커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면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통해 빵을 직접 생산하고, 오직 빵만 단독 메뉴로 판매하는 경우다.

게다가 ‘빵(bread)’의 정의는 빵을 식힌 후 무게를 잴 때 1개당 0.5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배아커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

노동법 강지니 변호사는 “고용주뿐 아니라 혜택을 받게 될 직원조차도 법의 세부조항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한동안 명확한 해석을 찾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열 기자**

## 수수료 투명성 높아지고 바이어 보호 강화

### 부동산업계 ‘수수료 전액 셀러 부담 중단’ 긴급모임



지난 27일 LA한인타운 레드포인트 부동산에서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브로커와 에이전트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집단 소송 최종 합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브로커와 에이전트 등 관계자들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집단소송 최종 합의와 관련해 긴급 모임을 가졌다.

지난 27일 오후 5시 LA한인타운 레드포인트 부동산에서 열린 긴급 모임에는 이해봉 매스터즈부동산 대표, 마크 흥 코러스 대표,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 제이 장 레드포인트LA 브로커, 맥스 이 LA exp 리얼티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전 회장인 이해봉 대표는 “NAR 소송 합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나누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긴급 모임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에 제안된 합의는 NAR 회원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합의로 처음으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잘못 언급했다”며 “NAR은 커미션을 정하지 않았고 30년 전부터 커미션을 협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고객이 전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유된 NAR 주택거래 중개수수료 반독점 소송 합의 주요 내용은 ▶4억1800만 달러를 4년에 걸쳐 배상 ▶NAR의 거의 모든 회원 배상금 지불 책임 면제 ▶7월 중순 MLS 중개인 수수료 포함 의무조항 삭제 ▶바이어 컨트랙트 작성 등이다.

매물리스팅 서비스인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그동안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케네

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고객에게 좋고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 맞춰 수수료는 움직일 것”이라며 “바이어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교육 받은 에이전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장 레드포인트LA 브로커는 “바이어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셀러뿐만 아니라 바이어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온 상업용 부동산은 이번 합의로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이

자 코러스 부동산을 운영하는 마크 흥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전에도 바이어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와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질로, 레드핀 등 인터넷부동산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데다 이번 합의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서 수수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어에게 수수료를 주게 되면 고객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로 계약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MLS에서 중개인 수수료 포함 의무조항 삭제와 MLS 가입 의무가 없어져 이전보다 부동산 업계에서 NAR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AR의 집단소송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현행 5~6% 수수료 관행은 유지된다. 승인 이후에도 5~6개월 동안 계속 양식과 조항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대표는 바이어 계약을 요구하는 새로운 MLS 규정을 준비하려면 NAR이 연말까지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ABR(Accredited Buyer's Representative) 과정을 수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어를 위한 컨트랙트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래가 힘들 것”이라며 “커미션보다 바이어 측을 보호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이은영 기자**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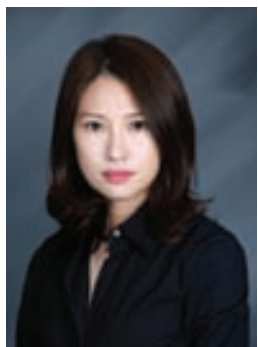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불안한 '850억불' ... 기업 "미 대관인력 3배로"

### 바이든 약속 믿고 투자 늘렸는데 트럼프 당선 땀 큰 피해 가능성

미국발 '폴리코노미'(Politics+Economy 경제의 정치화) 우려에 한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vs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구도로 확정되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대관 역량을 강화 중이다. 둘 중 누가 되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국 기업들이 유독 이번 미 대선에 긴장하는 이유는 최근 4년간 대미 투자가 확연히 늘어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20년 152억6000만 달러에서 2021년 279억3100만 달러로 확 늘었고, 2023년까지 3년간 누적 850억2400만 달러에 이른다. 대부분 반도체·배터리·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바이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산업들에 대한 투자였다.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미국에서 4년 만에 다시 '정권 교체'가 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투자 대가로 약속했던 혜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원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당시 과거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많았지만, 그래도 '재선'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었다"며 "만약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성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주요 그룹은 미국 대선 중 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은 미국 남부 애틀랜타에 있던 대

관 조직의 근무지를 워싱턴DC로 옮기고 현지 대관 인력을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포스코 측은 "자국 우선주의 관련 법안이나 정책,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해야 하기에 사무실을 옮겼다"고 밝혔다. SK도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현지 대관을 통합한 'SK아메리카스'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미국 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의 요직을 거친 인사들을 일찌감치 영입해 준비 중이다. 현대차는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우정연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각각 자문역과 전무로 영입했다. 한화그룹도 최근 미국 현지 대관 조직인 코퍼레이트 어퍼어(CA)팀을 새로 만들고, 대관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기업의 고민이 깊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이 정반대다. 현 바이든 정부는 '칩

법'을 만들어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에 보조금 지급을 내세웠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화석연료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시 화석연료 채굴 강화, 원자력 발전 확대,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친환경규제 철폐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IRA나 칩법에 따른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정부의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로비업체 등 20여 곳과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5곳 정도로 알려졌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미국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투자 철회로 유턴 기업이 나올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 '순애' '용의 눈물' 배우 남일우 별세

김용림 남편상, 남성진 부친상

원로 배우 남일우(본명 남철우·사진)가 3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1958년 KBS 성우극회 3기 성우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고, 1964년 KBS 공채 4기 탤런트로 안방에 진출했다.

드라마 '순애' '내 마음 별과 같이' '이차돈' '제2공화국' '코리아게이트' '용의 눈물' '명성황후' 등에 출연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1965년 결혼한 동료 배우 김용림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아들 남성진, 며느리 김지영도 배우다.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4월 2일 오전 11시, 장지는 경기도 광주 시 시간가족추모공원이다.

이지영 기자

## 교황 "평화는 손 내밀고 마음 열 때 만들어져" 부활절 메시지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 때 만들어진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 가자 지구, 유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을 호소했다.

AP에 따르면 교황은 부활 대축일(부활절)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한 뒤, 전달한 '우르비 에프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모마와 온 세계에'라는 뜻,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하는 공식 축복과 강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등 전쟁에 직면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웃는 법을 잊었다"며 "국제법 원칙을 존중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든 수감자의 교환을 희망한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해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체포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휴전을 촉구한 바 있다.

부활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부활했다고 믿는 날로,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왼쪽)이 부활절인 3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한 뒤 신자들에게 부활절 정보 축복 메시지(우르비 에프 오르비)를 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일 중 하나다. 바티칸에 따르면 이날 미사에는 약 3만명이 참석했으며, 교황은 차를 타고 광장을 여러 바퀴 돌며 신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올해 87세인 교황은 최근 4주간 감기와 기관지염에 시달렸다. 이 탓에 일부 일정을 취소하거나 강론을 건너뛰기도 했고, 보좌관에게 원고 대독을 맡기기도 했다.

성목요일인 28일 로마 교외에 있는 레비비

아 여성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 12명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세족례를 했지만, 다음날인 성금요일 로마 콜로세움에서 열린 '십자가의 길' 행렬에는 불참해, 건강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전날 밤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부활절 성야 미사에 이어, 몇 시간 뒤 진행된 이날 부활절 미사도 예정대로 집례해 그간의 우려를 씻었다.

김한별 기자

## 러시아, 미국 기자 구금 1년 WSJ '1면 공란' 시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1면 머리기사 자리에 "그의 기사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제목만 있는 공란 기사를 실었다.



1년 전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를 구실로 구금한 자사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32)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게르시코비치는 WSJ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3월 30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돼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에반은 안

지난달 29일자 WSJ 1면 공란 기사 제목은 '그의 기사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 [AFP=연합뉴스]

전 위험을 무릅쓴 채 기자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러시아로 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8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 '트랜스젠더의날' 이 부활절과 같은 날?

트럼프측, 바이든 공격 소재로

기독교의 2대 경축일 중 하나인 부활절이 매년 3월 31일 기념하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Transgender Day of Visibility)과 겹친 것을 계기로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30일 전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나서 돌아오는 일요일을 말한다. 따라서 그 날짜는 매년 이동적이다.

반면 성소수자 단체 '트랜스젠더 미시간'의 대표 레이철 크랜들 주도로 2010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한 '트랜스젠더의 날'은 매년 3월 31일로 고정돼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부활절이 일요일인 3월 31일로 정해지면서 트랜스젠더의 날과 같은 날짜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2024 트랜스젠더의 날 선포문(proclamation)'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의 특별한 용기와 공헌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들이 더 나은 삶을 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성 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미국인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날을 공인하는 포고문을 2021년 처음 발표한 뒤 매년 이날을 기념일로 선포해왔



지난해 트랜스젠더의 날 열린 집회 모습

다. 이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소름 끼치고 모욕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 비난했다.

캠프의 캐롤라인 래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기념일 선포는 수년 동안 이어온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 일환이라며 바이든 선거캠프와 백악관은 미국 전역의 가톨릭·개신교 신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親)트럼프 인사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도 엑스(X·옛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가 "부활절의 핵심 교리를 배반했다"며 "이에 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썼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기독교인인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의 존엄과 자유를 옹호한다는 입장이라며 "슬프게도, 정치인들이 잔인하고 증오스럽고 부정직한 수사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악화하려

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둘러싼 미국 사회 내 논쟁은 점점 뜨거워지는 추세라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다.

공화당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내용과 관련한 법률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이 사안을 이슈화하고 있다.

AFP 통신은 "트럼프가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구하고 바이든은 자신이 포용적인 미국을 위한 지도자라고 강조한다"며 "이번 사건은 대선의 향배를 좌우하는 '문화 전쟁' 속에 일어난 가장 최근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행 불법입국 경로' 멕시코 해변서 중국인 8명 사망

검찰 "보트 전복해 사망 추정"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 해안가에서 중국 출신 이민자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악사카(와카) 주 검찰은 플라야 비센테 마을 해변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사한 결과, 사망자들 국적을 중국으로 확인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망자들은 보트 전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오악사카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중국 국적 여성 7명과 남성 1명이 다른 1명(생존자)과 함께 보트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28일에 남부 타파출라에서 만난 멕시코 남성의 안내를 받고 보트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악사카 검찰은 그러면서 멕시코 주

경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려다 붙잡힌 중국인이 3만7천여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기록(1만5천여명)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중국인들이 자국 내 경제 침체와 정치적 탄압을 피해 미국행을 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등록 이민자 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지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금전 지원책(660달러)을 도입하는 한편 "텍사스에서 추방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 정치권에 유연한 이민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멕시코 레야노사에서 바라본 '강 너머 미국 땅' (촬영 이재림 특약원)

재 중국 대사관과 협력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부 과테말라 국경 지역인 치아파스와 가까운 이 지역은 테우안테페 지협에 해당하는 곳으로, 육로를 통해 멕시코 북부 미국 국경 지역으로 가려는 미등록(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경로에 속한다. 이 경로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의 멕시코 종단



부활절 예배 참석차 찰스 3세 국왕과 케릴라 왕비 (원저 EPA=연합뉴스)

# '암 투병' 찰스 3세 부활절 예배 참석

암 진단을 받은 뒤 외부 활동을 자제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31일(현지시간)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찰스 3세는 이날 케릴라 왕비와 함께 윈저성 성조지 예배당에 도착해 취해진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든 뒤 입장했다.

앞서 부활절을 앞둔 지난 28일 영국 성공회의 성목요일 행사인 왕실 세족식엔 불참하는 대신 사전 녹음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 바 있다.

찰스 3세는 지난달 초 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발표하고 외출을 자제해 왔으나 버킹엄궁에서 외부 인사

를 접견하는 등 공무는 계속 이어왔다. 지난달 중순에는 샌드링엄 영지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다녀오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왕실의 이날 부활절 예배는 예년 보다는 소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3세에 이어 마친가지로 암 진단 사실을 최근 공개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과 남편 윌리엄 왕세자, 이들의 세 자녀는 이날 예배에 불참했다.

왕세자빈은 지난 22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1월 복부 수술을 받은 뒤 암이 발견돼 '예방적 화학치료'를 받고 있다며 공개한 바 있다.

# 부활절 네덜란드 나이트클럽서 인질극 소동

부활절 연휴인 30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경찰은 인질이 모두 풀려난 뒤 용의자를 체포했다.

AP·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 에더 시내에 있는 나이트클럽 '카페 페티코트'에서 28세 남성이 나이트클럽 직원 4명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네덜란드 경찰은 오전 11시30분께 엑스(X·옛 트위터)에 "인질 3명이 방금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어 낮 12시30분께 "마지막 인질이 방금 풀려났고(용의자) 1명을 구금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복면을 쓴 채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 자수했다.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은 남성이 투항하기 전 "현재로서는 테러를 동기로 볼 만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언론은 용의자가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의 가방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 나이트클럽에서는 이날 오전 4시까지 DJ 자프러 윌러프의 공연이 열렸고 경찰이 오전 6시30분께 처음 출동했다고 네덜란드 공영 NOS 방송은 전했다.

당국은 인질극이 벌어지는 동안 인근 150가구를 대피시키고 주변 가게들 영업을 중단시키는 한편 이 지역을 오는 열차 운행도 취소했다. 에더는 암스테르담에서 남동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인구 7만명의 소도시다.



3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더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투항한 남성. (EPA=연합뉴스)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oOne's Lab at UMAP and Medi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십시오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구리안근에서 3분, 실버스프링에서 10분, 린콜드에서 10분, 가리

센터빌/챌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풋데일, 안티오크(antioch)와 챌들리 (chandler)에서 5분 거리

# 메릴랜드한인회



## 제 37대 정·부회장 이임식 및 제 38대 정·부회장 취임식

“공감하고 신뢰받는 한인회”

반세기가 넘는 51년의 역사를 지닌 메릴랜드한인회가 제 38대 회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제 38대 회장단은 한인사회에 희망을 불어넣고, 감동을 주며, 공감하고 신뢰받는 한인회를 만들어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이뤄가고자 합니다. 또 한인사회의 화합과 상부상조, 문화생활 향상 및 차세대의 한국문화 체험, 권익옹호, 주류사회와의 교류 등에 힘쓸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새로운 열정과 용기를 갖고 출범하는 새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8대 회장 안수화



제 38대 수석부회장 김영후

**일시** 4월 4일 (목) 오후 6시 ~ 8시

**장소** Ten Oaks Ballroom

5000 Signal Bell Ln., Clarksville, MD 21029

\* 식사 제공합니다.



**메릴랜드한인회**

회장 안수화 / 수석부회장 김영후

# 전 유엔 조정관 “러, 대북제재 못 없애자 성가신 패널 제거”

(영국 에릭 펜턴-보크)

(대북제재 감시)

## “대북제재 위반 등 추적하는 패널들 러, 북과 무기거래 지적하자 거부권”

러시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앨런 김 선임연구원은 29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체제의 영구적인 해체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1단계로 기존 제재 결의의 이행 중단, 2단계 신규 제재 결의의 채택 저지에 이어 3단계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김정은 국무위

원장은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그토록 소망했던 대북제재 해체를 사실상 ‘공짜’로 얻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김 위원장에게 ‘노다지(bonanza)’가 터졌다고 소개한 연유다.

지난달 5월까지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영국 외교관 출신의 에릭 펜턴-보크(사진) 전 조정관은 29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패널 부활 시도에도 거부권을 쓸 것이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4월 30일 종료 예정인) 패널은 이미 사망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목적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미사일 확산,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보통신(IT) 노동자 등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 등의 문제를 지적한 패널 활동이 자국 이익에 해를 끼치는 성가신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때 스스로 찬성했던 제재 레짐에 맞서고 있다. 제재 자체를 제거할 수 없기에 패널이라는 성가신 존재라도 없애버린 것이다.”

“러시아는 ‘패널이 서방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 패널은 싱크탱크, 언론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내부 합의를 통해 정확하게 고 판단한 내용만 발표한

다. 패널은 모든 출처와 증거에 열려 있었지만, 일부 회원국만 협조적이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등의 도움이 컸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기회를 틈타 패널의 활동에 훼방을 놓으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 말인가.

“최근 몇 년간 패널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문의하면 모두 멸시(contempt)를 당하거나 무시됐다. 패널을 도울 기회가 매년 있었지만 스스로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제재를 위반하는 게 자국에 더 이롭다고 판단했다.”

“패널 활동이 이어지는 게 왜 중요한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제재는 제대로 이행될 때 의미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를 수년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WMD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에릭 전 조정관은 올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 안보리의 작동원리를 바꾸지 못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잘못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외교가 일각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희망해 온 살상무기 직접 지원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러시아의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 미·일·필리핀,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 공동순찰 나선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필리핀과 남중국해를 공동으로 순찰하고, 미 해병대의 전투 방식도 ‘중국 맞춤형’ 스타일로 바꿀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미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4월 11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합의 사항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엔 남중국해에서 세 나라가 공동 해군

순찰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과 필리핀은 과거에도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진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까지 참여한 3국이 공동으로 순찰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다.

폴리티코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남중국해의 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온 중국은 최근엔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빈번하게 물대포 공격을 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또 오커스(AUKUS, 미국·영

국·호주 안보 동맹)와 일본·필리핀 간의 군사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일본 교도통신은 “4월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을 겨냥해 영국과 호주, 필리핀과 안전보장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투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상륙 작전부대인 해병대를 최전선에 배치하고 해병대가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 탐지장치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네타냐후 퇴진” 이스라엘 촛불시위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들과 이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촛불과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인질 석방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 “닛케이 4만 훈풍, 기업 체질 바꾼덕”

### 이와나가 도쿄거래소 대표

1990년대부터 기업에 밸류업 요구 배당·자사주 매입 늘자 주가 상승 일본판 ISA로 개미 투자도 많아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끝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황은 일본 경제의 변화를 알리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와나가 모리유키(岩永幸幸·사진) 도쿄증권거래소(도쿄거래소) 대표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다. 인터뷰를 위해 도쿄 니혼바시(日本橋)에 있는 일본증권거래소(JPX) 본사를 찾아간 지난달 27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지수는 다시 4만을 넘어 장 중 한때 4만1010까지 치솟았다. 증시 안내판엔 상장 기업의 주가 상승을 알리는 빨간 숫자가 가득했다. 이와나가 대표는 “일

본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주가 상승을 끌어가는 힘”이라면서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 내 개인들의 투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주식시장 호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본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이익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약 13% 증가했다. 내년도 올해보다 약 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 성장 전망이 좋으니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물가도 오르고, 임금 상승도 가파르다. ‘디플레이션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일본 기업의 질적 변화 중 하나가 거버넌스 개혁이다. JPX는 지난해 3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개혁’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PBR을 1배 이상으로 높이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 자산에 비해 주식시장 평가 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JPX는 이런 기업들에 앞으로 어떻게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가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주들에게 공지하도록 요구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를 벤치마킹했다.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말까지 일본 프라임 시장(한국 코스피에 해당) 상장사 70%가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지난달 26일 닛케이 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 상장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작년보다 6% 증가했고, 자사주 매입은 9% 늘었다.

일본 정부는 또 개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한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본판인 NISA 제도를 확대했다. 올해부터 NISA 통장을 통해 개인이 주식투자를 할 경우 비과세 규모를 매년 360만 엔(약 3200만원)까지 늘리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거버넌스 개혁이 도입 1년 만에 좋은 성과를 거둔 듯하다.

“최근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업에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한 건 1990년대부터다. 당시엔 상장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의 공금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체크하겠다는 취지였다. 2000년대 들어 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09년 독립입원(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권고를 내렸고 2015년 기업지배구조 행동(이른바 ‘거버넌스 코드’)을 제정했다. 프라임 시장 상장사의 경우 이

사회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는데 현재 대상 기업의 95%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일본 주식시장 성장세는 지속될까. “그렇다. 작년까지는 외국인인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일본인들이 일본 주식을 사는 시대가 왔다. NISA 통장 개설 수는 지난해 1~3월 평균과 비교해 올해 2월엔 2.9배나 늘었고 유입 금액은 3.3배 증가했다. 주가가 오르면 개인의 삶도 윤택해지는 선순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막 시작한 한국에 조언한다면?

“서구 투자자들이 최근 10년간 중국에 약 35조 엔(약 311조원)을 투자했는데 리스크 요인으로 최근 상당수가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이 돈이 일본, 한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동아시아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백성호 공인회계사

#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COWAY



# 코웨이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는데 .. 물과 공기만큼 가까운게 있을까요?

단 한잔의 물이여도, 잠깐의 휴식이라도, 코웨이는 안심 가득한 청정수로 답합니다



## 헬스 플래너를 찾습니다!

자유로운 일정 속 능력에 따른 소득을 원하는 분

다양한 혜택과 즐거운 문화를 찾는 분

1인 사업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

경력단절로 인해 새로운 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

지금, 코웨이 헬스 플래너에 도전해보세요!

고객이 사는 지역환경은 물론 가족환경까지 고려해 딱 맞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계획하는 COWAY HP



<https://promotion.coway-usa.com/coway-dc/>

부모 계엄교육

## 코웨이가 주관하고~

COWAY

# 내 아이를 위해 부모가 선물하는 BALLOON ART

프로그램	대상	일시	정원	참가비
풍선아트 (풍선 과일바구니, 부케, 화단, 동물 만들기) **경력 17년 최윤정 강사	지역 내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아빠!	4월 매주 (화) 11:00 AM ~ 12:00 PM	12명	무료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jiyoonbae@coway-usa.com](mailto:jiyoonbae@coway-usa.com)  
→ 참석 가능 날짜, 지원자 이름, 전화번호 전달
- 장 소: 코웨이 Annandale, VA 오피스 내 교육장
- 문 의: 703-992-0835 (배지윤 담당)
- 유의사항: 풍선아트 프로그램 시작 전 간단한 회사 소개와 제품 안내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실에는 유아 동반 입실이 가능하며 풍선아트는 부모에 한 해 운영됩니다.



Washington, DC 703-992-0835



Re:BLUETION  
깨끗함의 무한 책임

# 동독의 역발상 '미남계'...서독 여비서·통역 줄줄이 무너졌다

서독 본 주재 미국 대사관 통역관인 가브리엘 크리엠은 퇴근 후 어느 때처럼 라인강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32세의 미혼인 크리엠이 따분함을 달래는 방법이었다. 1977년 7월의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다. 달랐던 것은 산책 중 금발의 훈남이 눈에 들어왔다는 점이었다. 지나가는 행락객이었거나 생각하면서도 '내 연인이었으며 참 좋겠다'는 찰나의 상상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갈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불쑥 말을 건넸다. 라인강에서 바라보이는 산(지벤 게브리계)의 일곱 개 봉우리가 아름답지 않느냐는 시답잖은 말 걸기였다. 그러나 싫지 않았다. 그 훈남은 평화문제에 관심이 많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름은 프랭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7년간 깊은 연인관계로 이어졌다. 프랭크는 동독 슈타지산하 대외정보국(HVA) 소속 스파이였고, 프랭크에 흠린 크리엠은 부탁을 받을 때마다 미 대사관 기밀들을 동독에 넘겼다. 냉전기 동독이 미남 스파이를 투입해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서독 여성들을 포섭한 정보작전의 골자였다. 이듬해 로미오 작전(Operation Romeo), 세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따온 명칭이다.



동독 로미오 스파이에게 포섭된 서독 본 주재 미 대사관의 가브리엘 크리엠 (Gabriele Kliem·사진 왼쪽), 서독 연방정보국(BND) 소속 가브리엘 가스트 (Gabriele Gast).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사진 BBC]

소련, '제4 국가학교'서 스파이 전문 육성  
미남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사례가 있다. 동독의 로미오 작전은 역발상의 미남계로 정보전을 성공시킨 모델로 평가된다. 냉전 40년 동안 로미오 작전에 포섭된 서독 여성은 체포된 인원만 40명에 이르렀다. 포섭된 여성들의 소속 기관에는 총리실, 행정부, 정치권은 물론 정보기관, 국제기구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양과 질도 엄청났다. 볼프 국장이 "여비서나 통역 한 명이 수집한 정보의 양과 질은 외교관 10명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가성비 높은 정보전이었다. 로미오 스파이들의 '사랑의 기술'도 뛰어났다. 간첩죄로 체포된 여성 대부분이 스파이와 사랑에 빠진 그 순간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전체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길목이었다. 대외정보국은 크리엠의 단골식당 종업원들을 통해 성격과 연애경험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 그날 라인강변에서 프랭크가 크리엠에게 접근한 것도 이 같은 치밀한 준비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금방 프랭크와 사랑에 빠진 크리엠은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의 군사전략을 비교한 극비정보 등 프랭크가 요구한 대로 정보를 넘겨주었다. 크리엠은 사랑의 함정에 빠져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프랭크에게 묻지 않았다. 그와 헤어지기 싫고 헤어짐이 두려워하였다. 때가 되면 행복하게 같이 살자는 그의 연약한 믿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크리엠은 결국 1984년 프랭크와 헤어졌다. 헤어짐의 아픔은 컸지만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해방된 출가분함도 있었다.

역사의 뒤안길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독일통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동독 후 슈타지 문서관리청에서 크리엠의 스파이 행위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크리엠을 더욱 절망케 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동독 대외정보국의 반인격적 처사였다. 크리엠이 프랭크에게 보낸 연애편지가 모두 대외정보국의 심리전문가에게 넘겨져 낱낱이 분석되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엠은 "그들이 내 편지를 같이 읽고 웃으며 내용을 분석해 나를 어떻게 조종할지,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구속할지, 나를 어떻게 정보수집에 활용할지를 시시덕거리며 논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모욕감과 수치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찢음을 치른 후 그녀는 미련없이 독일 일을 떠났다. 네덜란드에 정착한 크리엠은 조그마한 옷가게를 운영하고 유기견을 돌보면서 여생을 보냈다.



1 마르쿠스 요하네스 볼프(Markus Johannes Wolf), 34년간(1952년-1986년) 동독 대외정보국(HVA)을 이끌면서 세계 정보사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2 냉전 당시 뛰어난 정보력으로 세계적 명성을 날린 동독 대외정보국(Hauptverwaltung A : HVA)의 베를린 리히텐베르크 본부 건물. 해외공작총국이라고도 부른다. [사진 위키미디어]

## 전 모사드 국장 "사랑은 정보활동 최대 무기"

로미오 작전은 여성 대신 남성을 투입하는 미남계 전략이다. 정보계의 레전드인 동독 대외정보국의 마르쿠스 볼프 국장이 기획했다. 30세에 대외정보국 수장이 된 볼프는 서독의 고위인사 포섭을 위해 유능한 요원들을 침투시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고민하던 볼프는 고위인사를 직접 포섭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서나 통역 등 여성을 포섭하는 우회적 방법을 써 보기로 했다. 당시 여성들이 맡고 있던 통역이나 비서는 고급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정보적 가치를 클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 1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남성들의 전사(戰死)로 여초현상이 심해 여성을 유혹하기도 쉬운 환경이었다. 볼프는 훈남이면서 여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배려심 많은 요원들을 선발했다. 포섭할 여성이 결정되면 그 여성의 일정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수집했다.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다.

**슈타지 문서관리청**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지의 비밀문서들을 한군데 모아 종합 관리하기 위한 문서보관소. 과거 서독내 동독 부역자들의 실체가 여기 문서들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2021년 6월 '독일연방 문서'로 이관되었다.

**제4 국가학교(State School 4)**  
미남계·미남계 스파이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련의 특수학교. 1931년 설립된 소련 공산당 레닌기술학교(Lenin Technical School/Ленинская техническая школа)가 원류로 소련의 전설적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Richard Sorge)도 이 학교를 거쳤다. 2018년 레드 스파이(Red Sparrows)라는 영화로도 소개되었다.

서독 아헨 공대 여학생이었던 가브리엘 가스트도 로미오 작전의 탓에 걸렸다. 1968년 3월 그녀는 박사논문 주제인 '동독 여성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현장연구 차 동독 켈니츠를 방문했다. 방문 며칠 후 작은 맥주 바에서 칼 슈미트라는 남성을 만나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 그해 7월 동독을 다시 방문한 가스트는 슈미트와 재회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슈미트는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외정보국은 그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1년 정도 관찰 후 대외정보국은 슈미트가 어떤 요구를 해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가스트가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때부터 슈미트는 자신의 신분을 과감히 공개하고 가스트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스트에게 서독 연방정보국(BND) 입사를 권했다. 입사 후에는 BND내부 동향과 미 레이건 행정부

의 유럽 안보정책 등 기밀정보를 요구했다. 가스트는 모두 응했다. 그러던 중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운명의 시간 앞에 선 가스트는 독일통일 나흘 전인 1990년 9월 29일 슈미트를 만나기 위해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향했다. 그러나 국경 검문소에서 가스트를 기다린 사람은 슈미트가 아니라 서독 경찰이었다. 동독 대외정보국이 가스트의 스파이 증거자료를 파기하기로 약속했으나, 방청 책임자인 칼 그로스만이 자신의 신분보장을 위해 가스트의 정체를 서독 당국에 밝힌 것이다. 가스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한낱 도구로 이용된 것을 깨달았다.

당연히 윤리적 비판도 뒤따랐다. 독일통일 후 이 작전을 기획한 볼프에 대해 독일 여론은 연약한 여성의 사랑을 악용한 잔인한 학대 행위를 자행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볼프는 "정보기관은 윤리나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목적과 동기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수단과 방법은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것이 정보라는 것을 애들러 말한 것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순수한 감성이지만, 정보의 관점에서 보는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치명적 마력 때문에 사람을 포섭하기 위한 휴먼트 정보전의 무기로 바뀐다. 이스라엘의 아미트 전 모사드 국장은 "사랑은 정보활동의 가장 큰 무기"라고 말했다. 현대 정보전에서 사랑을 매개로 한 정보활동은 보편적 현상이다. 심지어 소련은 모스크바 근교에 '제4 국가학교'를 설립해 미남계·미남계 스파이를 전문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직관과 유혹의 기술을 통해 상대를 조종하는 고난도의 심리정보전 요원을 양성하는 곳이다. 냉전 시기 제프리 해리스 영국 대사나 모리스 드진 프랑스 대사 등이 소련의 작전에 걸려들었다. 이를 통칭해 섹스피오나지(sexspionage)라고 한다. 성(sex)과 정보(espionage)의 합성어다.  
윤리적 금기를 넘어서서 인간의 심리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정보세계의 냉엄한 현실이다. 2008년의 원정화 사건 등 우리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터져 있었다. 지금도 그런 시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 김웅용 변호사

##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http://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방행)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http://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 Root Canal Treatment

**인비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Sung Hwang & Kim

##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 전세사기 막으려 보증한도 줄였더니... 월세시대 재촉했다

## 무너지는 서민 '주거 사다리'

작년 전국 빌라 거래 34% 급감  
전세도 기피, 반전세·월세 급증  
보증 안되는 차액은 월세로 돌려

최근 방문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빌라촌. 70가구가 넘는 원룸형 빌라 건물의 30%가량이 공실로 있었다. 공실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연말이면 이 건물 90%가량이 빈집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전세사기(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빌라(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빌라를 월세·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다.

하지만 2022년 말 터진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여파로 ▶사지도(매매) ▶살지도(전세) ▶짓지도(분양) 없는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 청년·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길 위기에 처한 셈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빌라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4%(12만9746→8만5593가구) 줄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 분위기에 더해 전세사기 이후 “빌라는 위험이 크다”는 ‘낙인’이 찍힌 탓이다.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개발 가능성이 큰 노후 빌라촌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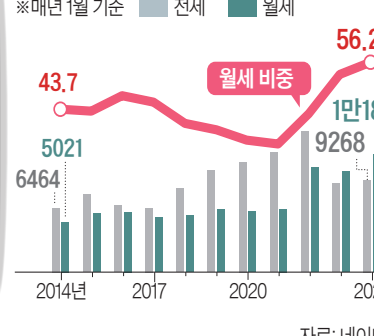


서울 방화동 A빌라, 전세가 반전세로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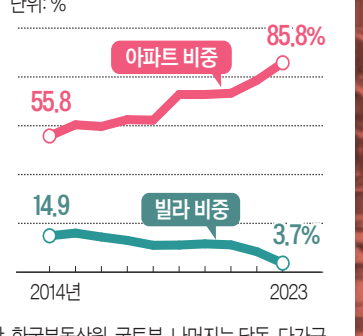
연월	보증금	월세	공시가격	반환보증주택가격(상한)
2022년 4월	1억9500만 (추정)	0	1억 4700만	2억2050만 (공시가격×150%)
2024년 4월	1억8144만	9만	1억 4300만	1억8144만 (공시가격×126%)

역전세 1356만

다세대·연립 월세 비중 점점 늘어



아파트 인허가는 쏙, 빌라는 뚝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 8891가구 중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88%를 차지했다. 빌라는 1만4785가구로 3.7%에 그쳤다. 인허가 물량 중 빌라의 비중은 2014년 14.6%였으나, 지난해에는 10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경기도에서 빌라 등을 짓는 최모씨는 2년 전부터 사업을 쉬고 있다.

그는 “아무도 안 사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주변에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업자가 많은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란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빌라 전세 기피도 심화하는 추세다. 올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 총 2만1146건 가운데 월세(1만1878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았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를 꺼린다. 반면에 임대인은 정부가 전세사기 이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

화하면서 빌라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약 126%로 낮췄다. 그러면 보증보험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딱진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유지하거나 시세만큼 더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만큼을 월세로 돌려야 한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할 때 보증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을 월세로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강서구 방화동의 임대인 A씨는 2019년에 준공한 전용면적 30㎡ 투룸을 보증금 1억8144만원, 월세 9만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2년 전 1억9500만원에 전세를 내았는데, 보증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1356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월세(9만원)로 불렀다. 이런 집주인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시가는 앞으로 시세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는 부담스럽다. 청각장애인 B씨는 투룸 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HUG·LH 등에서 제공하는 저금리의 정책자금대출로 입주 가능한 빌라 대부분은 공시가의 126%에 보증금이 맞춰져 있는데, 추가로 10만~3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해서다. 소득이 높지 않은 B씨는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전문가는 실효성 있는 빌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제외했다. 올해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60㎡ 이하)·저가(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주택 매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쏠린 상

황을 풀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올해 나온 대책 대부분이 한시적인 데다 신축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여전히 임대인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의 임대시장 유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임대료 상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전세보다는 운영 소득에 해당하는 월세에 대한 비중이 커져야 한다”며 “그동안 서민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로 보증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게 숙제”라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 오피스텔·소형아파트로 '월세 풍선효과'

오피스텔 월세, 9개월 연속 상승세  
60㎡이하 아파트 월세 비율 최고치  
최근 서민 주거의 한 축인 신축빌라·오피스텔·소형아파트 등 소형 주택 월세가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빌라(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서 수요가 소형 주택 월세 시장으로 몰려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월세지수는 지난 2월 기준 100.14로 지난해 5월(99.66)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

를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세와 반대로 매매가격은 내려가면서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5.4%) 이후 최고치인 5.28%까지 뛰었다.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월세 점유율도 63.8%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역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월 기준) 가장 높다. 이 비중은 2020년 1월 55.2%였고, 2023년 1월 61.7%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경제만립 분석). 소형아파트의 월세지수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오름세다.

대학가 등의 신축빌라 원룸 월세도 치솟고 있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 임대

수요는 신축 월세로 이동 중이다. 지난 2월 준공 5년 이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 지역 신축빌라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올랐다(다방 분석).

소형 주택 월세 상승으로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 중 주거비 지출 비중을 계산한 ‘슈바베 지수’가 지난해 4분기 평균 11.4%로 나타났다. 직전 3분기 10.3%에서 1.1%포인트 오른 것이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 슈바베 지수가 8.2%에 그쳤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는 17.5%에 달했다.

김원 기자



윤 대통령 부활절 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통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나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타이슨스 코너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구인

<p><b>진료과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내장 레이저 수술 <small>Cataract Laser Surgery</small></li> <li>녹내장 레이저 치료&amp;수술 <small>Glaucomal Laser and Surgery</small></li> <li>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small>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small></li> <li>정기적인 눈 검사 <small>Routine Eye Exam</small></li> </ul>	<p>안구 건조증 치료 <small>Dry Eyes Therapy</small></p> <p>눈 당뇨병 레이저 &amp; 주사 <small>Diabetes Laser and Injection</small></p> <p>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small>Eyelid Surgery (Blepharoplasty)</small></p> <p style="color: #ffc107; font-weight: bold;">카중보험 적용 됩니다</p>
--	--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mailto: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p><b>Vienna T: 703 853 1966</b>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a href="http://dc-eyeclinic.com" style="color: red;">dc-eyeclinic.com</a></p>	<p><b>White Oak T: 412 681 8505</b>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p>	<p><b>Shady side T: 412 681 8505</b>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p>	<p><b>South side T: 412 681 8505</b>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p>
--	--	--	---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케어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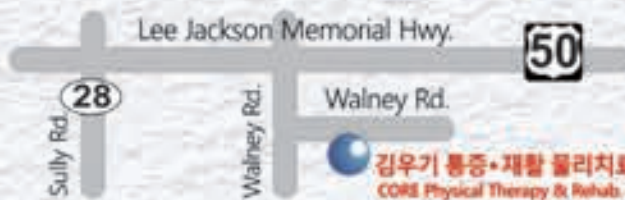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양문석 편법 대출 논란 확산... 민주당은 “후보가 대응할 문제”

(대학생 딸 명의 11억 사업자 대출)

양문석 “대출로 피해입은 사람 있다”  
한동훈 “사기대출로 소상공인 피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후보의 부동산 투기와 ‘아빠 찬스’ 논란이 총선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여원에 구입하고, 이듬해 4월 대구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를 담보 잡아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히 대학생인 장녀 앞으로 받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한 부분



을 놓고 불법성 여부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편법 대출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양 후보는 파장이 확산하자 태세를 전환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가짜 뉴스, 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겠다”고 한 데 이어 30일에는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성인인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게냐’고 제안했다”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라고 했다. 양 후보는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신고할 땐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을 적어냈다.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과상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양 후보의 해명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 준 사기대출이 맞다”며 “그러니까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시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뤄 보자.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과 양문석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것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이라며 “이분이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상의해 한 것

이라고 하는데, 짜고 하면 배임이라고 죄명만 바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다 사기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에 대해 이날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강민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라는 입장을 보였다.

군 북부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서울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읍) 후보에 대해서도 이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복수의 제보자가 공 후보자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벌비에 취업하고 재직 중이라는 제보해 왔다”며 “공 후보자의 딸이 현대글로벌비에 취업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은 것이

다. 이 대표는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고도 했다. 역시 화성읍에 출마하는 이 대표가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 후보를 겨냥해 자녀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 후보 측은 중앙일보에 “공 후보가 현대차에 재직할 때 딸이 현대글로벌비에 공채로 입사해 현재도 재직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일이 대꾸하지는 않겠다. 취업 당시 자료는 글로벌비에 전부 남아 있을 테니 정 궁금하면 글로벌비에 물어보는 게 빠를 것”이라고 했다.

정용환 기자

##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지리산서 4년간 피나는 훈련”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거된 유튜버 A씨(40대·사진)를 도운 공범 B씨(7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A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8일 검거된 유튜버 A씨와 같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양산시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 개표소인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본투표소인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B씨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이동하며 주로 양산길 안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부정선거 감시자’를 자처하며 전국 여러 투표소를 돌며 유튜

브 방송 활동을 해왔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 ‘선관위 발표 투표인원과 영상에 담긴 실제 선거인원 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31일 구속됐다.

A씨 불법 카메라는 지난달 18일 양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 사전투표소 등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어떻게 하면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양산·인천=안대훈·위성욱 기자

## 전현희 17%P 우세 vs 윤희숙 5.8%P 우세 ‘응답률’ 따라 여론조사 극과극 갈렸다

총선 여론조사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조사별로 지지율 진폭이 커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서울 중·성동갑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중·성동갑에 거주하는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14일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은 39%로 동률이었다.

그러나 나흘 만에 KBS(18~20일) 전화면접 조사에서 전 후보 45%, 윤 후보 28%로 오차범위 밖인 17%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다.

비슷한 기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격차가 들쭉날쭉했다. 조선일보·TV조선(22~24일) 전화면접 조사에선 전 후보 43%, 윤 후보 27%로 16%포

인트 격차가 났지만, 한국일보(23~26일) 전화면접 조사는 전 후보 37%, 윤 후보 30%로 오차범위(±4.3%포인트) 내인 7%포인트 차였다. 약 2주간 진행된 복수 조사에서 작게는 동률이거나 크게는 17%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전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한국경제신문이 피애플에 의뢰해 24~28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후보 39.8%, 전 후보 34%였다. 이 조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모바일 웹조사’였다. 응답률은 무려 48.3%였다. 응답률이 통상 5% 안팎인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나 10% 안팎인 전화면접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 관계자는 “모바일 웹조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설문에 응할 수 있어 응답률이 높다”며 “응답률이 낮은 조사보다 더 신뢰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내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에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모바일 웹조사는 응답 시 1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유인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응답을 끝내는 ‘불성실 응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령이는 여론조사에 여권 일각에선 진보 과대표집(특정 집단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주장도 제기된다.

손국희 기자

## 조국, 김영삼 생가 찾아 “내가 YS 키즈”

조국(사진)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 대표가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후진국을 만든 정권의 황태자”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조국당 창당을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문제인 정부 후반기에 선진국이라고 국민이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며 “헛소리 그만하고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테니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에 대해선 “코뚜레가 떨어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YS) 생가에 들러 “제가 김영삼 키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YS가 학창 시절을 보낸 부산시 북구 대신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서 YS의 “하나회 척결”을 치거



세우며 “군부독재를 무너뜨릴 때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배우야 할 때”라고 했다. 방명록에도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셨던 용기와 하나회를 척결하셨던 결기 가슴에 새기며 검찰독재정권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다단계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을 변호해 거액 수임료(22억원)를 받아 벌어진 논란에는 “박 후보를 털 게 없으니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를 탄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3월 HOT 리스팅

###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화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1,496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페릴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6701 Democracy Blvd, #300      13001 St. NW #400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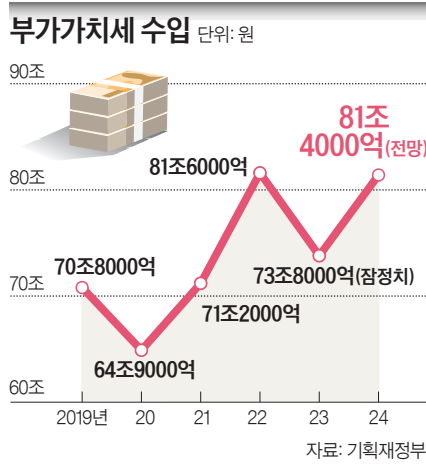
Fairfax, VA 22030      Bethesda, MD 20817      Washington DC 20005

# 당정, 생필품 부가세 인하 추진 ...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10~5%)

물가 고공행진에 한시 인하만 지지... 출산·육아용품·가공식품 등 대상

경우 1만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인 제품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탕·밀가루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부가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세 인가가 시행되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세수 감소 우려부터 제기된다.

단일세율이 붕괴되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삼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일반 소비세다."

절차적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10% 과세' 혹은 일부 품목(미가공식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품 기저귀 등)에 대해 '면세'로 운영한다.

예컨대 미가공식품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

정해 면세 품목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부가세 인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시적인 방안 말고 명확한 부가세 인하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면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 이상 물가상승률이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부가세를 인하한다'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자는 의미다.

세종=이우림 기자

## “금융위기 극복 앞장, 재계도 존경”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추모 발길... 이재용·정의선·구광모·허창수·류진

을 지낸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은 허세우 GS칼텍스 사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고인은 전경련 회장 시절 사욕을 짓는 등 큰일을 많이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김진표 국회의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심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이흥구 전 국무총리 등 각계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과 성태운 정책실장이 빈소를 다녀갔다. 성태운 실장은 “고인은 우리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으로, 존경하는 기업인”이라고 말했다.

효성가와 사돈지간인 이병박 전 대통령은 셋째 사위인 조현범 회장의 안내를 받아 부인 김윤옥 여사와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섰다.

삼성그룹 오너(家)는 전날 빈소를 방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 [연합뉴스]

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남편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장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윤 삼성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등도 전날 빈소를 찾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도 방문했다.

최선-윤성민 기자

## 웅덩이에 빠졌다 구조된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못 가보고 숨져

웅덩이에 빠졌다가 구조된 여아가 전원할 상급종합병원을 찾던 중 숨졌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생후 33개월 A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주택 옆 1m 깊이 물웅덩이에 빠진 채 부모에게 발견됐다.

였던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오후 4시59분 보은읍 B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B병원 측은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오후 5시25분 충북 지역 3차의료 기관인 충북대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 중환자 병상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곧바로 대전 충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오후 5시50~55분 더 먼 천안의 상급병원 2곳, 오후 6시4분 대전의 한 종합병원, 오후 6시6분 경기의 한 상급병원에 차례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양은 B병원에서 CPR과 약물치료 등을 받던 오후 6시7분쯤 맥박을 되찾

았다. 이후 119상황실까지 상급병원 섭외에 나섰지만, 오후 7시1분 A양은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오후 7시25분 “전원이 가능하다”고 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은 2분 뒤 “심정지 상태에선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양은 오후 7시40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물에 빠져 심정지와 CPR을 1시간 이상 했다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도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원 과정을,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은=최준권 기자, 채혜선 기자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끈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우리말 바꾸기

헛갈리는 사자성어

다음 사자성어 중 표기가 바른 것은?

- ㉠야밤도주 ㉡포복졸도 ㉢산수갑산 ㉣성대묘사

사업하다 망해 몰래 도망치거나 남녀가 사랑 때문에 부모 몰래 도망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에 주로 실행하기 때문에 ㉠ '야밤도주'가 맞는 표현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반도주(夜半逃走)'가 정확한 표기다. 여기에서 한자 야반(夜半)은 밤 야(夜), 반 반(半)으로 구성돼 있으며 밤이 깊은 때, 즉 밤중을 뜻한다.

살다 보면 배를 그러안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는 경우가 있다. 심하게 웃다 보면 정말로 숨이 막혀 졸도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 '포복졸도'가 옳은 표현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포복절도'다.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을 단행할 때 ㉢처럼 '산수갑산'이라 얘기하기 십상이다. 산과 물이 있는 산을 생각하면 '산수갑산'이 맞는 말인 듯도 하다. 그러나 정확한 표기는 '삼수갑산(三水甲山)'이다. ㉣ '성대묘사(聲帶模寫)'는 맞는 표기로 정답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짐승 등의 소리를 흉내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대묘사'라고 잘못 쓰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미국은 북핵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지난 3월 11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는 정보기관 수장들이 총출동하여 북핵 위협에 대해 증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미국에는 18개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이 대표적인 정보기관이지만 육해공군과 해병대, 국무부,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 등에도 정보기관이 있다.

이 기관들을 총괄하는 것이 국가정보국장(DNI)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국장을 위시하여 CIA, FBI, DIA 등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애브릴 헤인스(Avril D. Haines) 국가정보국장은 각 정보기관의 분석을 종합하여 만든 '미국 정보커뮤니티의 연례 위협평가'라는 보고서에 의거하여 증언을 했다.

그는 "핵무력 증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때문에 북한의 핵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핵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차단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 준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공격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기관들의 이러한 분석은 향후 미국의 북핵 대응기조가 변화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즉, 핵외교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금 및 부품 조달을 차단하여 북한의 핵

무기 생산을 저지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애브릴 헤인스 국장은 북·중·러 또는 북·중·러·이란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들의 협력이 한미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사회의 비핵산 규범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무력을 통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면서 세계 핵질서를 흔들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 전략의 초점이 북한 핵 개발 저지에서 핵사용 방지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청문회 증언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 정보기관들의 이번 증언은 미국의 북핵대응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한미 정부나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외교를 통한 북핵 포기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불패의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2013년에 '경제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선포하고 '핵보유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에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22년에는 핵보유법에 이어 핵사용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고, 2023

년 개정헌법에는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명시했다. 이렇듯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 사용 독트린을 천명하는 법제정을 계속하는 것이나 매년 100여 발의 미사일을 쏘고 핵탑재 잠수함 건조에 열을 올리는 것을 지켜봐온 전문가라면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미 정부도 이미 얼마 전부터 북핵대응 기조를 이 방향으로 바꾸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4월 워싱턴선언 이후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의 전개를 통해 북핵 사용에 대한 응징 태세를 과시하는 훈련을 반복해온 것, 미국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를 반복해온 것,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세 나라가 북핵 정보와 경보를 공유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 현재도 한미가 한국의 재래군사력과 미국의 핵군사력 간의 통합 운용(CNI)을 통해 북핵을 응징하는 맞춤형확장억제전략(TDS)을 다듬어가고 있는 것, 한미군이 핵위기에 대한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증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미 양국이 북핵위협을 상쇄·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식의 핵경쟁은 남북한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겠지만, 경제적 빈곤 상태인 북한에게는 더욱 가혹한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이 원하는 길이 아니며 북한이 강요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때문에 북한이 생각을 바꾼다면 이 위험한 핵대치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

독자마당

투표는 반드시 하자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며, 기권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이 과거와는 다른 듯하다. 우선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선거 과정도 네거티브 공방만 치열하다.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공약과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다루는 법안들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된 것이 많기 때문이

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양대 정당이 본인들의 의무는 있는 채 상호 비방에만 골몰하는 탓이다.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정치 혁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각성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해 아직 정치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따라서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된다면 강대국 대열에 빠르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의 최연혁 교수는 "이상

적인 국가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면서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국도 그런 국가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확정된 후보들을 보니 정말 믿고 찍어주고 싶은 인물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의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임순·LA**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뻐뻐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직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지나 김  
교육/대학입시 전문

## Q 듀크대, 에세이와 표준시험에 점수 안 매긴다

▶문= 명문 듀크대가 입학 사정과 관련, 중요한 발표를 했다. 어떤 내용인가?

▶답= 듀크대는 최근 SAT, ACT 등 표준시험과 학부과정 지원자들이 작성하는 에세이에 더 이상 '점수'(score)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정책은 2025년 가을학기 입시부터 적용된다.

에세이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또는 입시 컨설턴트를 활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대학 측은 입학 사정관들이 어떻게 AI 소프트웨어 또는 컨설턴트가 작성한 에세

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AI나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에세이를 작성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듀크대는 표준시험과 에세이를 계속 입학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세이는 학생의 작문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도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표준시험 점수는 지원자가 제출할 경우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듀크대는 앞으로 에세이를 지원자들

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는데 활용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에세이를 읽을 때 스타일보다는 내용과 통찰력(insight)을 더 중요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듀크대 입학사무처는 과거에 커리큘럼 수준, 학업성적, 추천서, 표준시험, 에세이, 과외활동 등 6개 분야에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겼었다. 새로운 정책으로 점수를 매기는 카테고리가 에세이와 표준시험을 제외한 4개로 줄어든 것이다.

듀크대는 이처럼 카테고리 별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경쟁력 있는 지원자를 추려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몇 가지 카테고리만 검

토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된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현재 2024년 가을학기 명문대 입시 결과 발표가 한창이다. 입시 결과에 따라 많은 한인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마다 지원자는 늘어나는데 학교별 정원은 그대롭다. 명문대일수록 합격이 바늘구멍이어서 우수한 학생 중 상당수가 매년 이맘때면 고개를 푹 떨군다. '나를 받아주는 대학이 최고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입시를 치르는 것이 현명하다. 나의 능력과 열정, 독특함을 알아보는 대학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 Q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

한 범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희동  
상표/특허/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 Q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위원회 소송

▶문=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 일반적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기밀 등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 무역위원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소송을 통한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은 대체로 1년에서 1.5년 정도 소

요됩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보통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판사와 staff attorney가 배정되어 소송이 진행되며 증거 개시와 청문회 이후에 판사가 예비 결정을 내리고 이후 무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무역위원회 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입금지 조치나 판매금지 명령으로 제한되며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역위원회 소송의 장

점은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무역위원회가 지식 재산권 법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며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 소송의 경우 소환장과 소장의 피고에 대한 서비스를 원고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해외에 위치한 피고에 대한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무역위원회에서 직접 서비스를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피고들을 하나의 소송으

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domestic industry'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국내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 소송뿐 아니라 무역위원회 소송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철민**  
대표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 BED BUG

## 빈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http://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 skpmva@gmail.com

**무료 견적 571-992-5789**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99,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독점**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독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 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락빌 (301) 279-6960**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April 1,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전쟁'이 판돈을 키우고 있다. 생성 AI 시대, 시장과 기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건 모양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오픈AI의 대항마인 AI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에 27억5000만 달러(약 3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9월 투자한 12억5000만 달러를 포함하면 누적 투자금은 총 40억 달러(약 5조4000억원)다. 아마존의 이번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과의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부수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아마존이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부 투자를 했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AI 기업에 흘러간 투자금은 290억 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 글로벌 AI '전쟁' 아마존 또 움직였다 생성시에 3.7조 투자



MS는 이런 투자 경쟁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빅테크다.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7조5000억원)를 투자했다. 오픈AI의 GPT-4 등 AI 모델을 MS 클라우드 서비스 에지를 통해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며 클라우드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아마존은 앤스로픽 투자로 맞대응하고 있다. 아마존 투자를 받은 앤스로픽은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 인프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앤스로픽은 오픈AI 창업 멤버인 다리오·다니엘라 에머데이 남매가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AI 스타트업이다. 다리오 에머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와 여동생 다니엘라 에머데이 대표는 각각 오픈AI의 연구 부사장, 안전·정책 부사장 출신이다. **여성국 기자**  
» 2면 '아마존'으로 이어집니다

## '러비공' 달러... 피벗 예고되자 되레 위로 튕다

(금리 인하)

**'강달러 악몽' 되살아나**  
원화값 3개월 만에 50원 하락  
"구조적인 강달러 국면" 분석도  
달러 강세, 한국 수입물가 올려  
경제 불확실성 더 커질 수도

이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장 시작과 동시에 1350원대까지 떨어졌다. 달러와 비교한 원화 값이 1350원대까지 낮아진 것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초 달러 대비 원화 값이 1300원 초반까지 올라왔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3개월 만에 50원 가까이 떨어졌다.  
달러 독주가 다시 시작한 것은 우선 미국 Fed의 기준금리 인하 강도가 여전히 불확실해서다.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는 올해 0.25% 포인트씩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기 지표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2일 발표한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2%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3.1%)를 소폭 상회했다.  
불확실한 기준금리 인하 경로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경제의 격차로 인해 구

조적인 강달러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발표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한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3.2%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이 1%대 GDP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다.  
한·미 경제 격차는 기준금리 인하이후 더 벌어질 수 있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긴축 정책 완화가 미국 경제 독주 체제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각국의 기초 경제 체력을 반영해 결정된다"면서 "유럽·일본·중국 등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도 최근 미국 경제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강달러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 분위기도 원화 가치의 상대적 약세를 만들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은행(BOJ)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중

료를 선언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에 '수퍼 엔저'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졌다. 여기에 중국 경기 침체 우려로 위안화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이에 동조하는 원화 가치를 더 끌어내렸다.  
끝날 줄 알았던 강달러가 다시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달러 자산으로 자본이 쏠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 상승률에 악재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고물가가 장기간 유지됐던 '끈적한(sticky)' 국면이 가고, 물가 변동성이 커지는 '울퉁불퉁한(bumpy)' 구간이 찾아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하겠지만, 완전한 목표 물가 상승률(2%) 달성까지는 물가 상승률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당분간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남준·이아미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영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강력한 전직검사**  
**대형 교통사고 전문**

**국제로펌 출신** **부동산 매매 전문**  
**최고의 상법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손) Christine E. Shin(Sohn)**  
cshin@rowepllc.com  
**상법전문** 인터넷·국제상법 / 재산증식  
투자권설정 / 재용자 / 명의변경 / 리스협상  
부동산 세들먼트 / 비즈니스 설립  
전 여성경제인 협회 회장 역임  
현 세계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매매 클로징
- 명의변경 / 위임장
- 재용자 (Refinance) 클로징
- 유언장 작성 / 집행 / 상속
- 타이틀 (등기) 조사, 검토, 투자상담
- 비즈니스 리스 계약, 리부, 재협상, 조정

**전직검사**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교통사고 민사·형사 변호사**  
**노승훈 Robinson S. Rowe**  
rrowe@rowepllc.com

**소송전문** 교통사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 마약  
심각한 음주 운전 / 절도 / 폭행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pflores@rowepllc.com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354.1111**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한국인 전문 상담 Mrs. Lee 사무장  
VA **703.887.1037**  
klee@rowepllc.com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 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at Law  
www.rowepllc.com

# “사표 대신 내드립니다”... 인력난이 낳은 일본의 신품속도

“귀사에 재직 중인 OO씨의 퇴직 절차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1월 11일자로 귀사 퇴직을 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대행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도쿄에 있는 IT컨설팅 회사인 이코퍼레이션닷컴이, 인사담당 임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일년 남짓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퇴사 대행 서비스’를 신청해 대신 전화했다는 것이었다. 퇴사 대행 서비스 회사가 건네온 건 사표. 거기엔 ‘본인과 절대로 직접 연락하지 말 것, 개인 물건은 우편으로 착불로 보내거나 버려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회사 영업총대표는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전혀 없는 친구라 3개월 동안 연수시키고 6개월간 사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면서 훈련 중이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영 대표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본인과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내년 봄 졸업 예정인 구직자들이 기업 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을 서었다. [AFP=연합뉴스]

**돈을 내고 사표 내는 사람들**  
일본에선 최근 몇 년 새 회사에 사표를 대신 내주는 퇴직 대행 회사들이 성업 중이다. 지난 2018년 일본 언론들을 통해 이색 서비스로 소개된 이후로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된 고객은 젊은 층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실제로 퇴직 대행 회사들은 변호사나 노동조합,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이용료는 1만 엔(약 8만9000원)에서 2만9000엔(약 25만8000원)까지 다양하다. 회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용 후기 역시 20대가 주를 이룬다.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 퇴사를 상담했지만 몇 번이나 주위의 만류로 퇴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부터 “업무량이 많아 야근에 체력 한계가 왔는데 월급까지 적어 고민하다 퇴직 대행을 신청했다”까지 다양했다.

한 20대 여성은 “회사에 사람이 적은 데다 관계도 좋지 않아 사표 내기가 힘들었는데 퇴직 대행을 해보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퇴직 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자, 회사들은 메신저(SNS) 등을 통한 상담을 내세우며 ‘당일 퇴사’는 물론 다 쓰지 못한 휴가를 퇴사 전에 소진할 수 있도록 협상을 돕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영총 대표는 “회사에 퇴사의사를 직접 말하길 어려워하는 일본 청년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도선매 이뤄지는 인력난**  
퇴직 대행이 성행하는 배경 중 하나는 일본의 인력난이다. 인력 부족으로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더 나은 처우의 회사로 옮기는 구직자가 늘면서 퇴사 대행 서비스의 이용자도 늘고 있다. 일본의 인력난을 실감할 수 있는 건 일부 기업의 도산이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영총 대표 이코퍼레이션닷컴 대표가 최근 ‘퇴직 대행’ 서비스 회사를 이용한 신입직원의 퇴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현에 기자

올 1~2월 사이 인력 부족으로 도산한 기업은 24곳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2%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임금 인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관련 도산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손 부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신규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도선매에 나서고 있다. 신학기 시작은 4월이지만 개학 전인 3월부터 내년 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내년 대졸자의 ‘내정률’은 40.3%(3월 1일 기준)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높아졌다. 2017년에 4.6%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크다. 두 곳 이상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든 사람은 내정자의 절반(48.2%)

에 이를 정도로, 지난해(35.8%)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른바 겹치기 합격자가 늘자 기업들은 대졸 초임 올리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즈호은행은 인력확보를 위해 초임자 급여를 월 5만5000엔(약 49만원) 올리기로 했다. JFE스틸(5만엔)을 비롯해 이도추상사(5만엔), 다이와증권그룹(1만엔) 등도 잇따라 초임을 인상하고 있다. 노무행정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졸자 기준 입사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22만5686엔(약 200만원), 고졸자는 3.7% 증가한 18만3388엔(약 163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30% 3년 이내에 이직**  
요미우리는 “저출산으로 대졸 예정자 감소에 더해 기업이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젊은 직원들의 이직”이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졸업자 기준, 32.3%가 3년 이내에 이직을 선택하는 등 신입사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명중 닛세이이초연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들어 비자발적인 이직자보다 자발적 이직자가 증가하면서 퇴직 대행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기업 도산처럼 비자발적인 이직보다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한 자발적인 이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실업자는 185만명, 이 중 자발적인 이직자는 69만명이었다. 하지만 올 1월 기준 실업자 163만명 가운데 자발적 이직자가 71만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전체 실업자는 줄고, 자발적 이직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본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싫거나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퇴직 대행사 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면 ‘아마존’에서 이어집니다  
앤스로픽은 자체적인 윤리 규범을 세우고, 안전한 AI 개발을 중시한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3월 자체개발한 AI모델 ‘클로드’의 첫 모델을 공개했다. 4개월 뒤엔 클로드2를 출시했다. 8개월만인 이달 초 내놓은 클로드3는 오픈AI의 GPT-4와 경쟁하고 있는 최신 모델이다. 클로드3는 최근 AI 연구자와 이용자들이 AI 모델의 능

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순위표인 ‘챗봇 아레나’에서 처음으로 오픈AI의 GPT-4를 앞서 주목받았다.  
앤스로픽의 기업가치는 치솟고 있다. 이번 투자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184억 달러(약 24조 8000억원)다. 아울러 앤스로픽은 아마존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총 20억 달러(약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국내 기업인 SK텔레콤은 앤스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했고, LG CNS도 LG

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지분 투자를 했다. 아마존은 이번 투자를 통해 앤스로픽의 지분을 일부 갖게 됐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MS가 오픈AI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경영권보다 기술 협력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AI 스타트업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MS는 지난 2월 ‘유럽의 오픈AI’로 불리는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

트랄 AI에 1500만 유로(약 218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구글 딥러닝 AI 연구팀 출신 멤버 아이단 고메즈 등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코히어도 5억 달러(약 6700억원) 투자 유치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코히어는 지난해 엔비디아, 오라클, 세일즈포스 등으로부터 2억 7000만 달러(약 3640억원) 투자를 받아 주목받은 캐나다 토론토 소재 기업이다.

여성국 기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공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 FOMO 경계, 투자 목표 따른 포트폴리오 운용

<나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 증시 환경 분석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주요 기술 및 기본분석 지표들은 여전히 70대 30정도로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황소(bull)와 곰(bear) 지표

주요 주가지수들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승장 지표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내려갈 때까지는 올라간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기업실적도 양호하게 나왔다. 지난 달 말까지 나온 실적발표에 따르면 상당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내놨다. 전년 동기 대비 평균 7.9% 성장했다. 이는 당연히 올해 들어 상승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견인차 구실을 했다. 현재까지는 향후 시장환경에 대해 낙관할 수 있게 하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옵션시장도 상승장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는 반대쪽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듯했던 시장 폭은 특별히 낙관할 수준으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도 주요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은 오히려 하락 쪽이 더 많이 나왔다. 계속되는 '렐리'의 내적 동력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중요한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한 종목들은 오히려 줄었다. 계속 확인된 바이긴 하지만 현재의 상승장이 소수의 '메가캡'에 편중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상승장인 셈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도 리스크 요인이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인하가 더디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미 예상되는 첫 금리 인하 시



증시가 더 올라 갈 것이라는 전망과 내려갈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내는' 포모 증후군을 경계하고 정확한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상승 기초 중 황소와 곰장에 대한 전망 엇갈려 연준의 통화 긴축 유지 또는 완화 정책도 변수 저커버그 4억불·베조스 85억 달러 자사주 매도 기업 내부자들도 연속 주식 매각 처분 의미 고려

를 6월로 늦춰 잡고 있다.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일 때 시장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연준은 이미 몸집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적 완화 과정에서 사들인 국채를 다시 털어내고 있는 중이다.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긴축이다. 시장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 ▶지금 인플레이션은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1월의 수치다. 1월 중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1%를 기록했다. 핵심지수는 3.9%로 전달인 12월 수치보다는 소폭 내려갔지만 예상치는 웃돈 것이었다. 결국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기존 5월에서 6월로 미루게 했다. 2월 중 데이터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이다. 현재로선 전달의 3.1%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가 예상치에서 벗어나면 역시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3% 안팎의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것이 아니다. 지난 100년의 경험치에 비추면 평균치인 2.99%에 비해 조금 높은 뿐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내건 2%는 사실 도달해본 적이 없다. 지난 50년만 보면 평균 인플레이션은 3.97%다. 현재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시장이 연준의 더딘 인하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분명 성과를 내고 있지만, 더 확신할 수 있는 추가적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경기와 시장의 향배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차가 관건이다. 계속 관련 경기지표들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 ▶금리와 연준

실질 금리가 '포지티브'로 돌아선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9%대에서 고점을 찍었을 당시만 해도 기준금리는 1%대였다. 당시의 실질금리는 -8%였다는 뜻이다. 지금의 실질금리는 2.5%다.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인상 시기와 효과 사이의 시차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 연준은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 징후들을 추가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고, 시장은 자칫 긴축상태가 필요 이상 지속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준은 우선 2월과 3월의 물가지수를 통해 긴축효과를 재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동시에 경기가 지난 4분기에 이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4월에 예정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추정치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고용시장 역시 계속 연준의 관심 항목이다. 고용시장의 강세가 연준이 긴축상태를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했다. 결

국 향후 고용시장 지표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 등이 주요 지표들이다. 고용지표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추가 개선되지 않으면 6월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갈 수 있다. 한편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문제 등 외적 변수들도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내부자 거래

지난해 말 메타플랫폼(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4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를 팔았다. 올해 들어서도 1월과 2월에 총 6억610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총 1000여명의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팔았고, 128명이 샀다. 지난 88년 이래 가장 높은 내부자 매각 비율이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레온 블랙 등도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매각했다. 이 둘이 자사주를 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마트의 월튼가도 2월 중 15억 달러를 팔았고, 제프 베조스는 85억 달러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 버렸다. 내부자들이 자사 주식을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매각 사유가 아닐 것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는 현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현금을 쌓아 놓고 있다. 1677억 달러에 달한다. 버핏에 따르면 이유는 딱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헤서웨이에게는 가장 최근의 마니아 종목인 '엔비디아'도 딱히 투자할 만한 곳이 못 됐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시장환경은 긍정적 지표들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나만 소외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FOMO)에 수익률을 쫓는 투자는 더욱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 메디케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무료 상담**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투자의 경제학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AI 생태계

증권시장 인기 종목은 반도체 업체  
빅테크 회사 자체 AI칩 개발에 박차

지금 증권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꼽으라면 아마도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Nvidia)일 것이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GPU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업체다. 일반 투자자들의 인공지능 생태계에 관련된 지식은 이 정도 수준 이상 더 깊이 파고들지 않게 된다.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업체가 증시를 리드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엔비디아 이외에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향후 어떤 종목이 엔비디아만큼의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파

악하고 싶은 것이다.

먼저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GPU 프로세서는 과연 타 반도체 업체는 경쟁할 수 없을까. 지금 마이크로 소프트,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여러 대형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도 첨단인 GPU 프로세서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 엔비디아가 GPU 프로세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당분간 그 자리를 내놓지 않을 이유는 엔비

디아 GPU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쿠다(CUDA)에 있다.

실사 타 반도체 회사가 성능 좋은 GPU를 개발한다 해도 쿠다에 익숙해진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떠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AI 붐은 엔비디아에만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AI 개발에서 GPU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부품으로 떠오르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이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HBM(고대역폭메모리)이다.

HBM은 DRAM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정보 처리 능력을 증가시킨 제품이다. DRAM 시장의 1위인 삼성과 2위 SK Hynix, 3위 Micron이 HBM 업계의 강자이다.

현재 이 시장의 최대 강자는 HBM 시장의

5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SK Hynix이지만 현 HBM3에서 HBM3E, HBM4로 연결되는 개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선두주자는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자자들이 AI 생태계를 연구해 보면 엔비디아 이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두 주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다 해도 AI 시장 전체가 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 회사가 동반 성장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단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이미 경악할 정도로 빨라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관련 자료를 공부할수록 지우기 힘든 감정인 것 같다.

재정설계



클라루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401(k) 롤 오버

401(k) 플랜 론 있으면 먼저 갚아야  
7천불 미만 잔액 개인 IRA 이체 가능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임금과 타이트한 인력 시장으로 많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바꾸거나 해고된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401(k)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크게는 4가지 방법으로 401(k)를 관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 수 있고, 두번째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현금화할 수 있다. 4가지 방법 중 무엇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 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세금 및 법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오늘은 롤오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통한 론이 있는 경우

만약 기존 401(k) 플랜에서 론을 받은 것이 있다면, 론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롤오버할 수 없다. 롤오버와 관계없이 이미 그만둔 회사의 401(k)에 론이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 일 또는 연장일까지 모든 론을 갚아야 한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세금 삭감 및 고용법(2017 Tax Cut and Job Act)으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세금 삭감 및 고용법에 의해 2024년 4월 15일까지는 기본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2024년 10월 1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은 인출로 인정되며, 혹 나이가 59.5세 이전이라면 IRS 패널티 10%와 세금을 함께 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 401(k) 플랜에서 대출한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

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401(k) 잔액 7000달러 미만

전직 회사의 401(k) 계좌 잔액이 7000달러가 넘을 경우라면 개인 IRA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로 꼭 옮겨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7000달러 미만이라면 회사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개인의 IRA로 이체할 수 있고 1000달러 미만이라면 체크로 발송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그 금액이 5000달러였지만, SECURE ACT 2.0 법안에 의해 Small Balance Cash-Out의 잔액 금액이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401(k) 잔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 IRA로 롤오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송한 체크가 개인으로 인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새로운 금융기관의 IRA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로 간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59.5세 전이라면 Early Withdrawal Penalty 10%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01(k) 플랜 비용 비교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 내에서 적절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Target Dated Fund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Management Fund), 운용 수수료(Operation Expenses), 또는 펀드 수수료(Load and Fees) 등이 있다.

과거에는 한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과 다른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이 공개되어 각각의 플랜의 비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검토 후 현 직장의 401(k) 플랜으로 옮겨올지 아니면 기존 직장에 남겨둘지,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옮겨올지 결정하면 된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자리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동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존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이타쉬 메릴랜드	도장	그로서리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풀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풀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상가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단독 건물 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백클린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함,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책
		콘도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책 투자 컨설팅 주재원 랜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k@dwelldwashington.com



# 그 많던 사과 품종은 어디로 갔을까



사라져 가는 음식들  
맨 살라디노 지음  
김병화 옮김  
김영사



사라져 가는 음식의 하나로 책에 소개된 카자흐스탄의 시베르스 사과.

[사진 맨 살라디노]

과일은 자연 상태에선 보관이 힘들다. 과거에는 물러지거나 맛이 변하기 전에 수확지에서 소비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1870년대 냉동 선박이 개발되면서 대양을 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과학자들은 저장고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사과와 서양배는 1년 이상, 바나나는 2개월 안팎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 뒤 냉장체인이 완성되면서 전 세계 산지에서 집안의 냉장고까지 초고속으로 이어졌다.

영국 BBC 기자이자 음식 저널리스트인 지은이는 이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 수퍼마켓에서 팔기에 적합한 품종만 골라 키우는 균일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의 과수원에서 바나나는 단일종인 캐번디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사과는 저장성 좋고 색깔 선명한 레드 딜리셔스와 갈라, 감귤류는 발렌시아와 네이블 오렌지 등 특정종이 독과점하게 됐다.

이는 야구에서 교체 투수 없이 에이스 한 명만 등판시키는 것이나 진배없다. 캐번디시를 공격하는 병충해가 생기면 인류는 바나나를 맛볼 수 없게 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일본·중국 사과 시장에선 70년대 일본에서 육종된 후지(富士·부사) 품종이 지배한다. 새콤함 때문에 애플파이로 만들면 맛이 뛰어난 홍옥이나 아삭한 맛이 일품인 국광은 이제 구하기도 힘들다.

들다. 토종인 능금도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지은이는 야생·곡물·채소·육류·해산물·과일·치즈·알코올·차·후식 등 10개 부문에 걸쳐 34개의 사라져가는 음식과 재료를 파고든다. 그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식도락만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즐기는 거대한 맛의 세계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문화적·산업적·생태적으로 다양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닭을 예로 들자. 전 세계에선 매년 690억 마리가 도축된다. 양계장 사육 기간은 심하면 35일까지로 줄었으며, 그 짧은 기간에 체중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사육 닭의 대부분은 1946~51년 미국에서 열린 '미래의 닭'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교배 닭의 후손이다. 더 튼튼하고 더 살이 많으며 더 빨리 자라는 품종이다.

일부 기업이 이들의 유전자 권리를 보유하며, 이는 지적재산으로 보호된다. 문제는 유전적으로 균일한 사육 닭은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 2020년 한국에 조류독감이 퍼졌을 때 2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조류독감에 강한 대체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포기하고 산업적인 고수익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바람에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것이다.

다양성에는 문화적 이유도 크다. 지은이는 몸집이 작고 느리게 자라는 닭 품종인 한국의 연산(連山) 오계(烏鷄)를 보호하는 이승숙씨를 만났다. "오계는 적어도 700년 이상 우리 선조와 함께해왔다"며 "오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영혼의 한 부분을 잃게 된다"는 이씨의 말이 울림을 준다.

희망은 있다.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지은이는 조지아의 고집스러운 포도주 제조자 라마즈 니콜라제를 소개한다. 세계 최초의 와인 제조지로 추정되는 서부 조지아 이메레티는 지금도 야생 포도 품종이 발견되고 거의 50가지의 서로 다른 토양이 있는 다양성 천국. 포도나무는 썩기롭고 곰팡글, 그리고 새 둥지 사이에서 자란다. 자연이 주도권을 쥔 이 지역에서 니콜라제는 고대 와인 제조용 테라코타 항아리인 크베브리를 이용해 자연과 인간, 전통과 소비자의 욕구가 조화를 이룬 포도주를 담근다. 포도나무를 군대 사열식으로 줄지어 심어 재배하는 현대 와이너리와는 천양지차다. 100년 이상 된 차나무에서 채취해 가공한 고차(古茶) 푸얼차나 야생 삼립 커피 채취자들도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 기후변화가 불러낸 놀라운 생물 가소성



허리케인 도마뱀과 플라스틱 오징어  
소서앤 지음  
조은영 옮김  
위즈덤하우스

제목부터 독특한 이 책은 '기후 생물학'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기후위기는 걱정이나 두려움과 더불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저자는 연일 뜨거워지는 지구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전생물학자인 저자는 아놀도마뱀부터 흙볼트오징어까지 22종의 생물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탐구한다. 핵심은 이들이 공통으로 가진 '가소성(plasticity)'이다. 용도에 맞게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플라스틱처럼 이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먹이와 성격, 심지어 형태까지 모든 것을 바꾼다. 가령 아놀도마뱀은 강력해지는 허리케인에서 살아남고자 앞다리는 길게, 뒷다리는 짧게, 발가락 패드는 크게 진화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깃발처럼 나무끼면서 강풍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다.

흙볼트오징어의 변신은 더 놀랍다. 캘리포니아만 앞바다에 사는 흙볼트오징어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대왕오징어로도 불린다. 그런데 큰 수온 상승 탓에 어느 순간 어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모두가 그린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 흙볼트오징어는 다른 종으로 보일 만큼 작아져 있었다. 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생장을 마쳐 번식했고, 다른 먹이를 먹었으며, 절반의 수명만큼만 살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한두 세대 만에 이뤄졌다. 이런 극강의 가소성은 멸종의 문턱을 넘는 대신 지구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들의 분투였다. 저자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기록한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종은 인간이다. 그는 지구상의 다른 유기체와 달리 인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이상을 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가소성을 제대로 발휘하기만 한다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기후변화와 싸움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때 그는 말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천권필 기자

## 책꽂이



**민주주의의 모험**(신기욱 지음, 인물과사상사)=자유주의의 빈곤,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로 한국 민주주의가 쇠퇴한다고 보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19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소통·협치하는 정치문화, 자유민주주의적 리더십 확립 등을 주문한다.



**맨발에게**(박희선 지음, 작가)=시인은 지난해 중앙시조신인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시조집. 뜻을 궁리하게 하는 시편이 적지 않다. '시인의 말'부터 그렇다. "조심스럽게 봄을 걸어왔다/ 꽃이 된/ 수많은 둥근 것들에게/ 지는 법을 물었다". 시인은 꽃길을 조심스레 걸었노라고 밝힌다. 꽃에서, 지는 법을 배우면서 말이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들이다.



**삼척, 불멸**(김희선 지음, 위즈덤하우스)=말기 뇌종양으로 폐까지 망가져 버린 아버지가 죽기 몇 시간 전 병원 침상에서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화자인 '나'에게 말한다.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아버지가 파악했던 우주 비밀은 양자역학 비슷한 세계. 인간의 인식만으로도 기억이나 감각이 현존하게 된다. SF 단편 한 편으로만 이뤄진 짧은 소설책이다.



**AI 저널리즘**(박창섭 지음, 두리반)=로이터 인스티튜트의 2022년 설문에 따르면 52개국 246명의 미디어 전문가 가운데 80% 이상이, 뉴스추천·취재 보조 등의 영역에서 AI가 이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늘 아침 읽은 기사를 AI가 작성한 것일 수 있다. AI의 편향성, 책임, 투명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짚었다.

#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 척추 한방 클리닉

###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한의원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 “위성처럼 적당히 거리두기, 이게 20년 롱런 비결”

다이나믹듀오 정규 10집 공개  
초6 때 힙합으로 통한 30년지기  
“오래 음악하려면 건강 제일 중요  
40주년 기념 콘서트도 꿈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 지금까지 붙어있다고 하니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이 절대 아남니다.”(웃음)

남성 힙합듀오 다이나믹 듀오(이하 '다듀')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이같은 해명부터 했다. 개코(김윤성·42)와 최자(최재호·43)는 학창 시절까지 포함하면 30년 이상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소속사(아메바컬처) 사무실에서 만난 이들은 롱런 비결에 대해 “위성처럼 거리감을 알맞게 잘 유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개코

최자

때 둘은 키 차이도 나고 성격도 달라 좀처럼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최자가 가져온 피규어로 친해졌고 힙합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해갔다.

개코는 “최자가 자랑하려고 들은 ‘터미네이터’ 피규어를 놓고 서로 ‘덕후력’을 뽐내기 시작했고, 그게기로 음악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은 언더그라운드 래퍼팀 K.O.D를 결성하고 힙합씬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0년엔 오버그라운드 래퍼팀 CB MASS에 합류했고, 드렁큰타이거를 주축으로 한 힙합 크루 무브먼트로 뭉쳤다. 당시 최고 인기였던 무브먼트엔 윤미래·양동근·은지원·에픽하이·리쌍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데뷔곡은 2004년 나온 ‘림마벨’이다. 이후 2집 ‘고백’, 3집 ‘출책’ 등 히트곡을 꾸준히 만들었다. 2006년엔 아메바컬처를 설립하고 슈퍼팀·자이언티·리플라워 등을 지원했다.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규 10집 ‘투 키즈 온 더 블럭’은 다듀의 오랜 궁합을 과시하는 앨범이



그들 다이나믹 듀오(왼쪽부터 개코, 최자)의 실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사진 아메바컬처]

다. 수록된 12개의 트랙엔 힙합을 좋아했던 소년들이 다듀로 이름을 알리기까지의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담겼다. 배우 이병헌·정만식이 내레이션에 참여했고, 비와이·크러쉬·pH-1·허성현·주니·릴러말즈·태버·DJ 프리즈·피식대학 등이 피쳐링에 가세했다.

다듀는 이병헌 섭외에 대해 “정규 10집을 여는 ‘인트로’에 누구나 아는 배우가 나왔으면 했다. 아내 이민정을 통해 부탁했다. 고교 후배인 민정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둘의 결혼식 축하도 했었기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신보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19’를 꼽았다. 힙합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학창 시절의 개코와 최자를 투영한 곡이다.

“학교 끝나면 내가 사는 정문과 개코가 사는 후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음악을 나눠듣곤 했어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때의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최자)

‘19’가 다듀의 회상곡이라면,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마지막 트랙인 ‘피타파’(피자 타코 파스타)는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미래지향적인 노래다. 후렴구에선 전세계 어디에나 있는 음식인 햄버거·피자·타코·파스타를 활용해 때장을 유발한다. 개코는 “노래를 작업할 때마다 무대를 그려본다. ‘피타파’는 가장 자연스럽게 신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올 하반기 예정인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기대했다.

다듀는 30주년, 40주년 콘서트도 꿈꾼다. 개코는 “어떤 노래를 내느냐보다 10년, 20년 뒤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졌다”고 했고, 최자는 “제임스 브라운처럼 죽기 직전까지 무대에 서고 싶다”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 AI 추천 영상만 본다, 인간의 자유 넘겨준 것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를 다시 기계에 넘겨주고 있는 아이러리한 상황이다.”

김기현(65·사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인간다움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인공지능(AI)과 기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들었다. 오랜 기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탐구해온 김 교수는 그 답을 정리해 지난해 11월말 철학서 『인간다움』(21세기북스·사진)을 펴냈다. 책에는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해 모든 선택을 내리는 미래, AI와 생명공학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딜레마 등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3요소는 공감·이성·자유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공감이다. 그런데 공감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강하게, 먼 사람에게는 약하게 작용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런 약점

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성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세뇌나 강요가 아닌 자유 의지에 의해 일어나야 한다.”

“AI와 기계에 대한 의존이 인간다움을 어떻게 위협하나. “자유 의지, 즉 주체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의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추천한 드라마, 멜론 등 음원 플랫폼이 추천한 음악, 유튜브가 추천한 영상만 소비하는 거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대체’보다 ‘개편’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19세기 초반 방직기가 발명되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그때 많은 직업이 사라졌지만, 기계를 다루고 관리하는 직종은 세분화하며 늘었다. 사라지는 직업만큼 새 직업이 생길 것이다. 끝내 기계

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도 있다. 간호사 같은 직업이 그렇다.”

“고용 시장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인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답을 내놓는 것은 기계의 몫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어떤 뚜렷한 과제가 있을 때는 AI가 인간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던질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인간의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 또 사회는 복잡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그걸 조정하는 능력도 중요해진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간다움의 요소인 ‘공감’ 능력이 퇴화할까.

“이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각종 앱을 통해 얼마든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자 관계’ 안에 갇히기 쉽다. ‘문자 관계’는 정서적인 교류를 차단한다. 인간은 서로의 감정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며 진화했다. 표정·제스



처·어조와 같은 단서를 통해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진화와 학습의 결과다. 사이버불링(인터넷 상의 집단 괴롭힘)의 증가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늘면서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인문학 교육이 도움이 될까.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이다. 공감과 이성도 철학과 역사·문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인간다움에 대한 위협이 커질수록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토론식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알고리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일수록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 영원히 확장 방향에 갇힌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다. 인문학 교육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맞는지 묻는 과정은 꼭 필요한데 한국 사회는 이런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맹목적인 경쟁 사회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라는 말이 심각하게 들린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성만 좇으며 살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간이란 무엇인가’ 같은 고민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제는 길을 찾을 때다. 그래야만 AI를 어디까지 발전시키고 규제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을 내릴 수 있다.”

홍지유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모든 절약은 이곳에서*      **유종옥 종합보험**

2023 Return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신경발달치료      근육 통증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보박스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철틀러 지역]

# 류현진 '15승 야구' 하면 ... 한화는 '가을 야구' 한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주장 채은성은 지난달 22일 KBO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행사에서 "올 시즌 4위 안에 들지 못하면 태안 앞바다에 뛰어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한화 최원호 감독은 "우리 고참 선수들의 각오가 이만큼 대단하다"며 흐뭇하게 웃었다.

한화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상위권 도약을 다짐하는 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류현진이 복귀한 한화는 올 시즌 5강에 들 만한 다크호스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만년 꼴찌' 후보였지만, 류현진이 중심을 잡을 올해는 포스트시즌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현장에서 경기를 해설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 방송사의 해설위원 모두 "류현진이 15승 정도만 거둔다면 한화는 가을야구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설위원 6인의 올 시즌 프로야구 전망을 류현진과 한화라는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왕의 귀환' 류현진은 몇 승?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내 무대에 복귀한 류현진은 연습 경기와 시범경기에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컨디션이 100%가 아닌데도 시속 140km대 중반의 빠른 공을 던졌고, 체인지업과 커브도 예리한 편이었다. 무엇보다도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제구력은 상대 타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난 23일 LG 트윈스와 개막전 선 4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패전투수가 됐지만, 전문가들은 류현진이 올해 맹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민철 해설위원은 "류현진의 기량은 예전 그대로였다. 팔꿈치 상태도 이상이 없어 보였다. 25경기를 던진다는 가정 아래 10승은 당연하고, 15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해설위원도 "2006년 신인 시절처럼 많



해설위원 6인의 시즌 전망  
정민철 "류 15승" 김태균은 "18승" 유희관 "올 도입 자동판정도 호재" 위원들 "LG·KT·KIA 5강 안정권 한화·두산·롯데 남은 두장 다룰 것"

게는 18승까지 예상한다. 지난해 에릭 페디가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했는데 류현진은 1점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택근 해설위원은

"한국에는 류현진처럼 큰 체구의 왼손 투수가 없다. 각도 자체가 생소해서 타자들이 애를 먹더라. 지금 구위와 제구력만 유지한다면 12~13승은 충

을 시즌 KBO리그로 복귀한 류현진. 에이스가 돌아온 한화는 해설위원들로부터 가을야구 진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볼·스트라이크 자동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도 류현진에겐 호재라는 평가다. 유희관 해설위원은 "ABS는 결국 제구력이 좋은 투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류현진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한화는 가을야구 할 수 있을까=6명의 해설위원은 류현진의 올 시즌 승수를 적게는 8~10승, 많게는 18승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58승 6무80패로 9위를 기록한 한화의 성적도 덩달아 올라갈까. 류현진 해설위원은 "류현진과 문동주가 25~26경기씩 나온다면 한화는 포스트시즌 진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마운드도 강해졌지만, 타선에도 경험이 많은 김강민과 안치홍이 합류했다.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는 류현진이 떠난 뒤 암흑기를 보냈다. 지난 11년 동안 5차례나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 기간 포스트시즌 진출은 3위를 기록한 2018년이 유일하다.

이동현 해설위원은 "한화가 그동안 뛰어난 유망주를 많이 뽑았다. 그러면서 투타 전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제 류현진까지 가세하면서 5강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LG와 KT 위즈, KIA 타이거즈 등 3팀이 가을야구 안정권이라고 본다. 남은 두 자리를 놓고 한화와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등이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했다.

배영은·김효경·고봉준 기자

## 30대 선수 짧게 쓰는 토트넘 ... '32세 쏘니' 종신계약 추진

시즌	주급	연봉
2024~?	3억4000만원 이상(미정)	176억원 이상(미정)
2021~24년	3억2000만원	168억원
2019~21년	2억4000만원	123억원
2015~19년	1억4000만원	75억원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2)의 인기가 상한가다. 토트넘 구단은 사실상의 종신 계약을 통해 손흥민을 붙잡을 계획이다.

토트넘 관련 소식을 다루는 영국 매체 스포츠웹은 지난달 26일 "토트넘이 간판 스타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유지 중인 그에게 과격적인 연봉 인상과 함께 사실상의 종신 계약을 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내년 여름에 끝난다. 구단과 선수 합의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를 2026년 여름

까지 늦출 수 있다. 34세까지 손흥민을 활용할 수 있는 토트넘이 굳이 연봉까지 올려주면서 새 계약을 맺으려는 이유는 손흥민의 성실한 자세와 리더십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398경기에서 159골(이상 컵대회 포함)을 기록 중이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4골 8도움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1882년 창단해 142년째를 맞이한 구단 역사를 통틀어 최다 득점 5위에 랭크돼 있다. 올 시즌엔 주장을 맡은 뒤 '리더십'

을 발휘하면서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클럽하우스의 중심점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여름 이적하자 구단 안팎에서 "리더를 잃은 선수단이 사분오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는 기우였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물려받은 이후 토트넘 선수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뽀퐁 뽀퐁 시즌을 치르고 있다. 이적생과 유망주 등 팀 내에 뿌리 내리지 못한 새 얼굴들까지 살뜰히 챙기는 손흥민에 대해 감독도 동료들도 한 마음으로 찬사를 보낸다.

토트넘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손흥민에게 구단 역대 최고 연봉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일종의 '유리 천정' 역할을 하던 케인의 종전 주급(20만 파운드·3억 4000만원)을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의 현재 주급은 19만 파운드(3억 2000만원)다.

토트넘은 30세를 넘긴 선수와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만큼은 예외다. 영국 매체 팀포크는 "토트넘이 (선수 계약 관련)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손흥민에게 다년 계약을 제의하려 한다"면서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은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결정이자 레전드로 예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지훈 기자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스프링 필드 타운홈

\$670,000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은 집 지하 워크아웃

페어팩스 싱글홈

\$785,000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페어팩스 타운홈

\$800,000

방4, 화4.5, 차고,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

리스버그 싱글홈

COMING SOON

방5, 화5, 차고 4835 Sf 2019년산

페어팩스 타운홈

COMING SOON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23쪽짜리 『우스운 사람...』, 전쟁같은 세상 연민의 힘을 깨운다

“올해는 대부분 학생이 사망하여 수업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This year's class period has officially ended due to the deaths of most of the students).”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을 당시 기자 교육부가 낸 성명서다. 이보다 명징하게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문구가 또 있을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짐승이 감춰져 있다. 분노의 짐승, 고문 받는 사람의 비명을 듣고자 하는 짐승, 마구 날뛰는 무법의 짐승이 마음속에 숨어있다(『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서)”의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니체 『선악을 넘어서』 중에서)”라는 니체의 말처럼 인간의 심연 속에는 시기, 질투, 증오, 분노가 가득한 야수가 살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인 것을 보면 말이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Francisco de Goya)가 전쟁의 참상을 그린 '1808년 5월 3일'(1814년 그림). [사진 지식음만드는지식]

법칙'이 화자의 심장을 부활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화자는 그저 소녀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워하다 안락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만다.

꿈속에서 미지의 존재에게 이끌려 지구와 똑같은 쌍둥이별에 도착한 화자. 그곳은 에덴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그곳의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악한 페테르부르크의 주민'이었던 화자가 이 낙원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킨다. 에덴동산과 같았던 낙원은 어느새 화자가 진저리를 치며 떠나려했던 지구별과 같은 사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버렸다.

타락한 사람들은 빠르게 분열하기 시작한다. 약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약한 자들을 압박할 때 강자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강자들에게 기꺼이 복종한다.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싸우더니 곧 연맹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깃발을 높이 세운다. 이윽고 '정의'를 고안해 낸 그들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완벽한 문서로 된 법전을 작성한다. 법을 보장하기 위해 단두대도 세운다.

## 아무것도 못 느끼는 '딩 빈 인간' 탄생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는 단지 '운이 좋아서' 전쟁을 모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할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던 12세 예바 스칼레츠카도 그랬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 역시 우리처럼 온 좋은 소녀였다. 하지만 예고 없이 들이닥친 불행은 그녀와 이웃의 삶을 송두리째 뒤 흔들었다. 전쟁의 공포로 몸과 마음이 마비될 때마다 그녀는 일기를 썼고,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는 비극의 현장은 그렇게 12세 소녀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왔다. 제2의 안네 프랑크이자 21세기 버전 『안네의 일기』라 할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무고한 시민이다. 별 탈 없이 농사 짓고 출근하던 한 집안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끌려가고, 폐허가 된 도시 곳곳에는 부모를 잃고도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아이들로 넘쳐난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전쟁은 지나친 이성이 낳은 광기, 어설플 계몽주의가 불러온 야만의 발현일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이기심과 오만함이 불러온 참극일 뿐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속에서도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 흔히 말하는 '뚝뚝'은 모두 오만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오만한 인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무시와 비웃음이다. 이들이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의식에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극도의 오만함은 사람을 무감각의 세계로 이끈다. 무감각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신경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아무렇지 않게 인간성을 말살한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딩 빈 인간'의 탄생이다.

『우스운 사람의 꿈』의 주인공도 그랬다. 『우스운 사람의 꿈』은 원서로 23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이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죄와 벌』 『백치』 『악령』을 출간한 후 마지막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집필하기 전 발표한 단편으로,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시공을 초월하는 철학과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것이 죽어 있는 세계에서 이 작품은 시작한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그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다. 화자는 모든 것이 죽어 있는 이 세계를 스스로 떠나려 한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 하는 것이다.

11월 3일, '정말 최악으로 음산하고 컴컴한 밤'이었다. '차갑고 음산한 비' '인간에 대한 분명한 적의를 품은 무시무시한 비'가 쏟아 붓던 날이

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밤하늘에서 반점처럼 빛나는 작은 별 하나를 발견한 화자는 이를 일종의 계시로 받아들인다. 그날 밤 반드시 결심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갑자기 추위에 떠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나타나 죽어 가는 엄마를 도와 달라고 애달린다. 하지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한 화자다. 그 무엇과도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 화자는 소녀를 매몰차게 외면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소녀에 대한 연민 때문에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내가 만약 오늘 밤 자신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세상의 모든 일이 나에게서는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로 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화가났다. 어째서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라고 느끼지 않고, 어린 소녀에게 연민을 느낀단 말인가? 나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다. 정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또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아이가 파멸된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죽어 있던 화자의 심장에 동정과 연민이 생겨난 것이다. 동정, 연민을 뜻하는 러시아어 '소스트라다니에(сострадание)'는 고통 받는다는 동사 '스트라다티(страдать)'에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어 '소(c=co)'가 붙어 만들어진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고통 받는다'라는 의미다.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완벽하게 창조해낸 아름다운 인물 『백치』의 미시킨의 입을 통해 '연민은 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존재 법칙'이라고 말한다. 이 '유일한 존재의

## 연민 뜻하는 러시아어 '함께 고통받다'

이 세계를 이끄는 '총명한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승리에 걸림돌이 되는 '총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런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던 주인공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깨어난다.

순간 화자는 '알을 깨고 나온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는 진리가 곧 타락한 지구를 구원할 해답임을 깨달은 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지구도 한 시간 내에 유토피아'가 될 수 있으리라. 화자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설교하는 전도사를 자처하지만, 타락한 지구인에게는 그 진리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다. 내 이웃은 완벽한 타인이자 경쟁자일 뿐인 지구인의 시선에는 화자가 그저 '우스운 사람' '미친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오만함으로 뽄뽄 뽄뽄 야수가 나타나면 반대급부에는 언제나 연민의 힘으로 뽄뽄 뽄뽄 '우스운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양떼는 야수 같은 강한 이빨, 날카로운 발톱이 없지만 김수영 시인의 표현처럼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들은 비바람에 눕고 울지만 끝내 일어나며 끝내 웃을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란 영화 '원들러 리스트'의 대사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안네와 예바라는 이름의 '한 우주'를 구하기 위해 최전방으로 뛰어들고 있는 우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총전에 따라 0월 0일, 공식적으로 학교 수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기적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며, 김경아 번역작가·CEO



우크라이나의 12세 소녀 예바 스칼레츠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록한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p><b>COMING SOON</b></p> <p><b>Bowie</b></p> <p>싱글홈, 방4, 화4</p>	<p><b>COMING SOON</b></p> <p><b>Columbia</b></p> <p>싱글홈</p>	<p><b>COMING SOON</b></p> <p><b>Millersville</b></p> <p>\$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p>	<p><b>COMING SOON</b></p> <p><b>Perry Hall</b></p> <p>싱글홈, 방3, 화2.5</p>	<p><b>UNDER CONTRACT</b></p> <p><b>Ellicott City</b></p> <p>\$689,000 싱글홈, 랜저 스타일, 내부수리 좋은 학교, 0.75 에이커</p>
<p><b>COMING SOON</b></p> <p><b>Cockeysville</b></p> <p>\$1,325,000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p>	<p><b>UNDER CONTRACT</b></p> <p><b>Columbia</b></p> <p>싱글홈, 방4, 화4, 차고</p>	<p><b>UNDER CONTRACT</b></p> <p><b>Millersville</b></p> <p>싱글홈, 방4, 화4, 차고</p>	<p><b>UNDER CONTRACT</b></p> <p><b>Rockville</b></p> <p>싱글홈, 방4, 화2</p>	<p><b>COMING SOON</b></p> <p><b>Cooksville</b></p> <p>싱글홈</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b>COMING SOON</b></p> <p><b>Elkridge</b></p> <p>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p>	<p><b>COMING SOON</b></p> <p><b>Hanover</b></p> <p>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p>	<p><b>COMING SOON</b></p> <p><b>Germantown</b></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b>COMING SOON</b></p> <p><b>Glen Burnie</b></p> <p>월 \$1,750 타운홈 방2, 화1</p>	<p><b>COMING SOON</b></p> <p><b>Hanover</b></p> <p>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b>COMING SOON</b></p> <p><b>Odenton</b></p> <p>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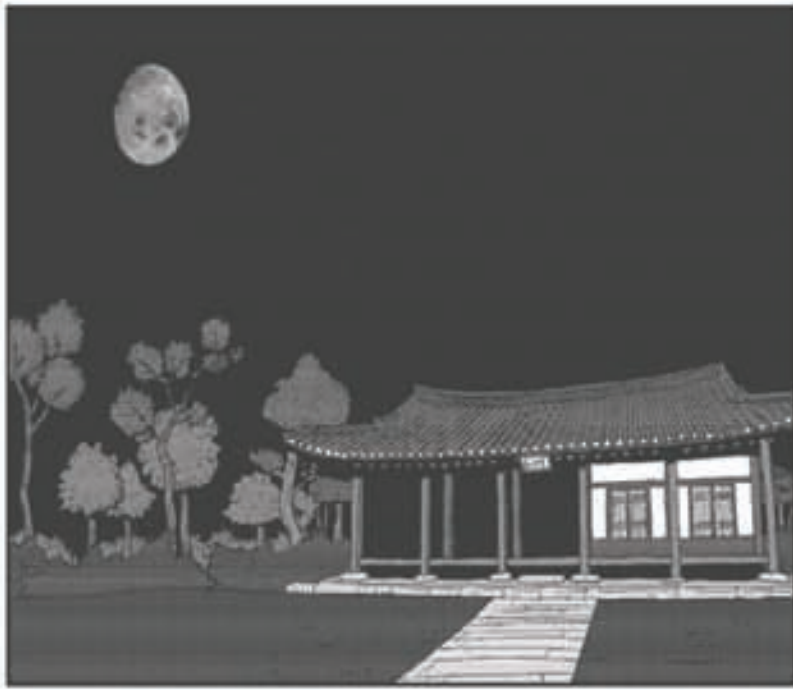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귀신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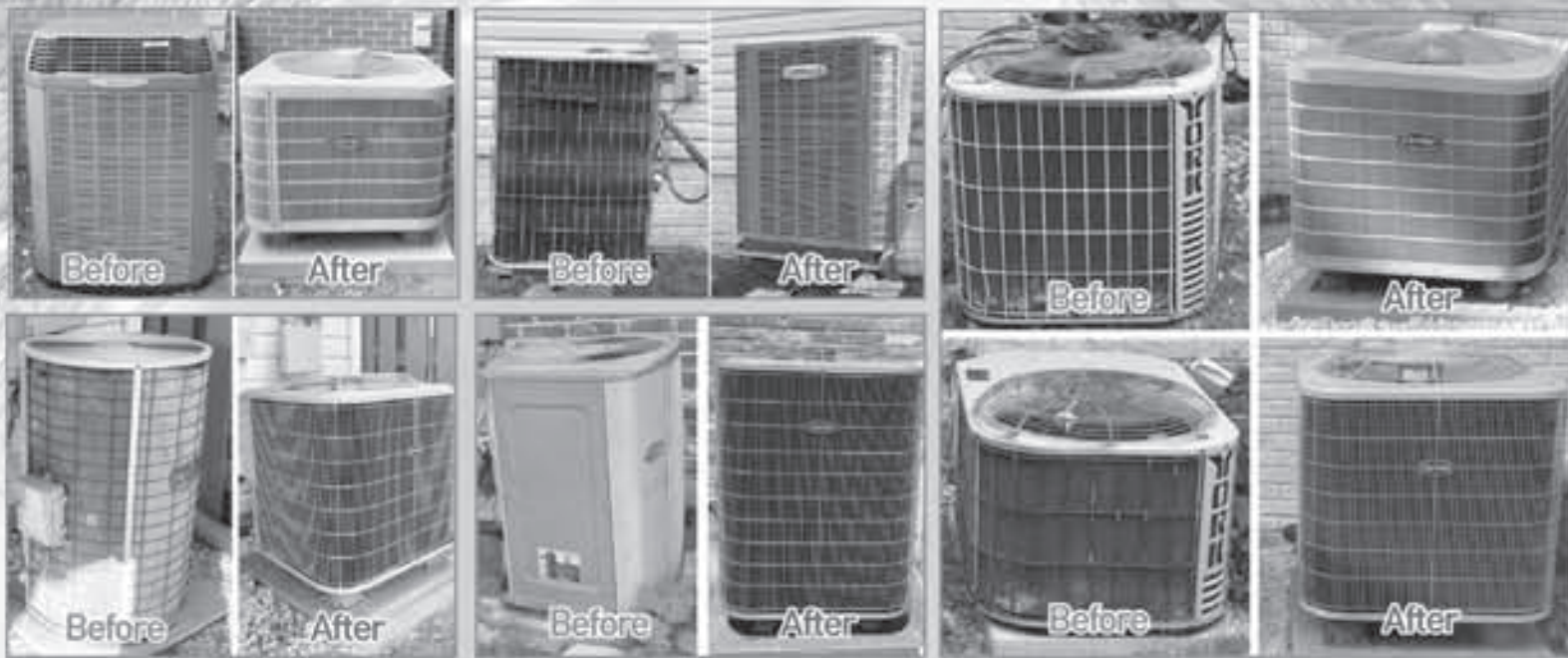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양생활안내 Classified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o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상담.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푸드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안되신분  
ceo@hanmiplast.com \*스폰서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서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밑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숙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펀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펀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서비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트/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한 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펀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이즈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원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로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헤어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내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아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입업 열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 폴타임, 엘리트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타임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웃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그래머/디자이너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업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 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과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 <기타 구인/구직>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폴타임, 파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 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 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폴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 하실 분 파타임 남여1명  
장소 칼리지파크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 부동산 렌트

###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폴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텍, wor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 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 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 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먼트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모, 비흡연자  
703-400-4520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원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 413-2738

MD 렌탈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703-336-3283

노스 포드 맥,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 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 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원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 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레게실 분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 1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3월말 입주  
703-975-0223

MD 렌탈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큰방, 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방 렌트  
욕실 가구원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 1, 취사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 1, 화장실 1  
703-887-5173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모,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비즈니스 커머셜 리스팅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샵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 개발 중인 진입로에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 근교 (I-66 Exit 47) 싱글 주택 추천

- \*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샵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단층 주택으로 1층에 방3, 화2

**\$550,000**  
방 3, 화 2.5, 차고 2

**\$530,000**  
방 3, 화 2, 차고 2  
1900스퀘어, 0.36 에이커

**\$590,000**  
방 3, 화 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 정크 빨리빨리

###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도와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도와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1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근처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내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 부동산 매매

### <싱글/타운/콘도 매매>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장, 편리한레스토랑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장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월순렌트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장 2.5, 0.3에이커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장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장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3개, 화장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장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업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옹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퀵비즈니스 스터드/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매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매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매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축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알터레이션 가능한 분, 섹탁스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 기타

차와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췌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걸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 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 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세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핏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공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이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아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 매매>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 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 (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 (4세트) \$100  
-교자상 2개 (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 (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주세요.  
Tel. 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 아연 니켈스 4-9 S P 번까지 8개  
- 던랍 (스페인제) 3-9 P S 7개  
- 요덱스 6-9 P 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셋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소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소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팅,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임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인타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선태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Mr. Chung)

### <보석>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 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민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 (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랭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드맨 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산, 계산순잡이  
▶703-340-5858 (VA)  
▶443-980-5858 (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 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만 잔디 깎기  
올라라린,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입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함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용자

맞춤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 공사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야기를 받지 않음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Lisa: You'll never guess what happened today. Take a guess.  
 리사: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모를 거야. 맞춰봐.  
 Chris: You've got me.  
 크리스: 나야 어떻게 알겠어.  
 Lisa: Do you remember that contest I entered last month?  
 리사: 내가 지난 달 대회에 콘테스트에 이름 써넣

은 것 기억해?  
 Chris: Actually no. It must have slipped my mind.  
 크리스: 아니. 잊어버렸나봐.  
 Lisa: Last month I filled out an entry form for this contest.  
 리사: 지난 달에 이 대회에 참전하는 양식을 기입했거든.  
 Chris: What are you telling me?  
 크리스: 본론이 뭐야?

you've got me: 전 모르겠군요

(Lisa meets Chris at the door~)

(리사가 현관에서 크리스를 만난다~)

Lisa: I just found out that I won first prize.  
 리사: 지금 막 내가 1등에 당첨된 걸 알았어.  
 Chris: What did you win a toaster?  
 크리스: 뭘 상으로 받는 거야 토스터라요?  
 Lisa: We're going to Hawaii for two weeks.  
 리사: 우리 둘이 2주간 하와이에 가는 거야.  
 Chris: I don't know what to say.  
 크리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군.

지역화한 표현

- ▶ slip (one's) mind: 잊어버리다  
 "I promise I'll be at the meeting. It won't slip my mind again."  
 (회의에 참석한다고 약속 드리죠. 이번엔 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 ▶ fill out (something): 양식을 기입하다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and return it to me."  
 (이 신청서를 기입해서 저한테 돌려주세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가로열쇠

(1)하얀 눈 (3)벼의 길쭉질만 벗겨 낸 쌀 (5)서울의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 (7)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 (8)동양화에서 군자와 같다는 뜻으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이르는 말 (10)플레이 숨어 있음 (12)마소를 먹이기 위하여 말려서 썬 짚이나 마른풀 (13)긴 막대기 (14)물이 빠져나가는 곳 (16)사막 식물 (18)돈, 신분증이 들어 있죠 (19)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품삯. 한복 한 벌 맞추는 데 ~이 얼마나 드나요? (20)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22)입금이 입힌 정복 (23)수소 등 가벼운 기체를 넣어서 공중에 띄우는 물건 (24)생물의 수컷의 생식 세포. 사람의 경우 길이는 0.05mm가량이고, 머리, 목, 꼬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성이 뛰어나다 (25)귀청 (27)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맡아보는 곳 (28)보급자리 (30)입상자에게 수여하는 컵, 기(旗), 상(像) 따위의 기념품.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의 오스카 ~를 받았죠 (31)한글 자모 ㄴ의 이름 (32)물고기 수컷의 뱃속에 있는 흰 정액 덩어리

세로열쇠

(1)달빛이 흰 말 (2)눈 속에 핀 매화 (4)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 (5)푸른 빛깔의 자기. 고려 ~ (6)마을이나 절 입구에 세운 사람 모양의 기둥. 작은 지하여장군이죠 (9)까니때 외에 마시는 물. 뜨거운 물을 식히기 위하여 타는 맹물 (11)얽지른 물.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바로잡거나 돌이킬 수 없음 (13)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 (15)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형구 (16)상대국과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공포함 (17)누상에 나가 있는 주자를 한 베이스 더 보내기 위해서 하죠. 희생번트 (19)중생대의 쥐라기와 백악기에 걸쳐 번성하였던 거대한 파충류 (21)호쾌한 흥분이 있는 구기 경기 (22)소의 창자 끝에 달린, 기름기가 많은 부분. 그녀는 곰탕을 끓이기 위해 ~를 소금을 뿌려 깨끗하게 씻었다 (24)맨 위 꼭대기. 최고 지위나 등급의 상태 (26)막내. 우리집 ~는 애교가 많아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다 (27)호랑이의 가죽 (29)대구나 북 등의 생선에 채소와 두부 등을 넣고 말갭게 끓인 탕

스도쿠

		7	8	6		5		1
						4	7	
4	1				3		8	
3		4						9
			4		9	6		8
	6	5			7			2
8		3	5		1		6	7
			3	4			9	
1						8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가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7	8	9	7	2	6	5	1
5	6	1	8	4	3	2	7	9
7	9	2	1	6	5	3	4	8
4	2	3	7	8	1	5	9	6
8	5	9	6	3	4	1	2	7
6	1	7	5	2	9	4	8	3
2	8	6	3	5	7	9	1	4
9	7	4	2	1	6	8	3	5
1	3	5	4	6	8	7	9	2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무경험자 가능  
 San Jose지역, 가 55만  
 (714)552-5714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꿈**을 위한 도약  
**꿈**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Line of credit**      **기계장비론**  
 간단하고 빠른 용자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SBA 7(a) 용자**      **기계장비 담보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10년 상환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바이오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마 살매 **Up to 40% 할인**  
 Up to 40% 할인  
 햇산삼 제일  
 파운드 이상 구입시 특별할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유당 도안역사당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담임목사님 청빙공고** 알래스카 앵커리지(Alaska Anchorage)에 위치한 알래스카 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1. 청빙 조건:**
  - CRC 교단이 인정하는 개혁신의 신학교(장로교단)를 졸업 후 CRC 교단 소속이시거나 CRC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으로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사역과 부목사 사역으로 5년 이상의 목회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 성경적 신앙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50대 전후이신 분
  -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 2.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가족사항/본인사진과 가족사진)
  - 자기 소개서 (성장 배경/신앙고백/목회경험/목회비전 간단명료하게)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 목사 추천서 2부 (추천자의 연락처 명시: 전화번호, e-mail) (추천자가 추천서를 직접 본 교회로 송부)
  - 소속된 교단에서 발행한 안수증명서
  -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1편(온라인 링크 및 설교원고 포함)
  - ▶ 첨부 파일(서류들)은 모두 PDF파일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 3. 추가 사항:**
  - 제출된 서류: 제출된 서류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일: 2024년 4월 30일
  - 보내실 주소: sungkwankim0105@yahoo.com      kwanghwangak@gmail.com

**참고** -서류 심사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방문 설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주소** 알래스카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  
 709 W. International Airport Rd, Anchorage, AK, 99518

**전화** (907) 632 - 3579, (907) 947 - 5645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